

코스피
3177.28
(-48.38)코스닥
798.05
(-17.21)금리 (미국 9년)
2.426
(+0.022)환율 (원·달러)
1385.45
(+3.44) (18일)metro[®]

Economy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

당근마켓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訪美 성과

빅테크 파트너십 가속 반도체 경쟁력 청신호

엔비디아와 회동 HBM 수주 기대
테슬라·애플과 대형 계약 성사도美 수출 33조 ↑, 中 수출은 감소
파운드리 투자 확대 관측도 나와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미국 장기 출장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 실적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방미 기간 동안 빅테크 경영진과 잇따라 회동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미 전략을 구체화해 더욱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지난 15일 약 2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친 뒤 귀국했다. 이 회장은 귀국 직후 내년도 사업 준비 계획을 언급해 반도체 부문의 추가 수주 성과 및 대미 후속 투자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94% 감소하며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으나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반등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이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HBM 납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HBME3 12단 품질 테스트 통과와 차세대 HBM4 납품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HBM4 1c 나노 공정의 양산 전환 승인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 개발을 완료해 주요 고객사에게 샘플을 이미 출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2026년 HBM4 수요 본격화에 맞춰 적기에 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1c 나노 케와 확대에 필요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출장 기간에 테슬라, 애플과 대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 소식도 알리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첨단 공정 양산에 돌입하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칩을 생산한다.

애플과는 신기술을 함께 개발 중이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인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 중심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수출액은 33조 47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수출액은 28조 79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감소한 수치다.

중국 시안에 위치한 낸드 플래시 생산법인 삼성 차이나 반도체의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 4146억원 63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7%, 영업이익은 17.2%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파운드리 고객사 추가 확보 및 투자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HBM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회장과 젠슨 황 CEO의 만남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점유율을 되찾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미 간 통상 협상에서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논의가 진행될 경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경영계 “노란봉투법 수정·1년 유예” 호소

이번주 본회의서 법안처리 예고
‘사업상 결정 제외’ 등 강력 요청

노사관계 대전환을 몰고 올 것이란 평가를 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이번 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가운데,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며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 종료로 처리되지 못한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확대했다. 노조의 활동으로 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 회장과 함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시스

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법원이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긴

급 토론회를 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등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섰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처리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임박하자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상의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하는 등 수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했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美 50% 철강 관세’ 407종 품목 추가

기계류·자동차부품에도 확대 적용
정부, 업계 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가 기계류와 자동차부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즉시 관세 영향권에 있는 국내 업체와 긴급 실무급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영향 최소화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기계·자동차 업종 협회 관계자들과 실무급 회의를 열고 미국발 관세 강화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업종별 현황을 공유했고, 필요하면 고위급 회의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부과 대상에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뉴스시스

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합의된 상호 관세율인 15%가 적용된다.

미국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긴 데 이어 6월 50%로 두 배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협상 여지를 차단한 채 관세망을 전방위

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대미 수출 주력 품목 상당수가 이번 대상에 포함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우리 철강 수출은 관세 부과 이후 뚜렷한 하락세다. 1월(-5%)을 시작으로 2월(-4%), 3월(-11%), 5월(-12%), 6월(-8%), 7월(-3%) 등 매달 역성장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관세 인상과 함께 글로벌 무역장벽 확대로 수요가 위축된 결과로 보고 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20일 만난
▲정청래, 한국교회총연합 예방… ‘남북관계’ 개선 역할 주문
/사진 뉴시스

▲기후위기특위, 새 위원장 위성곤… 여야 간사, 박지혜·김소희
▲국방부, 민주당이 ‘극우 추천 도서’로 비판한 진중문고 폐기 지시

▲대통령실 “김형식 관장, 국민적 의견과 사회적 논란에 귀 기울여야”
▲방송법·양곡법 국무회의 의결… 이 대통령 “고의적 허위정보, 책임 물어야 마땅”

최태원 회장 “글로벌 무대에서 승리 할 ‘소버린 AI’ 개발할 것”

SK그룹 ‘이천포럼 2025’

한국형 AI 주권 확보 포부 밝히
‘AI 3대 강국 실현’이 핵심과제
최 회장 장녀 최윤정, 첫 공식행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버린(Sovereign·주권형) 인공지능(AI)’ 개발 의지를 공식화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독립적 AI 체계를 구축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형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최태원 회장은 18일 서울 광진구 위커힐 호텔에서 열린 SK그룹 지식경영 플랫폼 ‘이천포럼 2025’ 개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버린 AI는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핵심”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를 반드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버린 AI에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무대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18일 서울 광진구 위커힐 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에 참석했다. /SK그룹

강조했다.

소버린 AI는 자국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통제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건 ‘AI 3대 강국 실현’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최 회장의 발언은 AI 패권 다툼이 격화된 상

황에서 한국만의 독립적 AI 체계 구축이 생존 전략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전략 논의의 장으로 6월 경영전략회의, 10월 CEO 세미나와 함께 그룹 핵심 의사결정 축을 이룬다.

첫날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그룹 핵심 경영진과 주요 계열사 CEO 등 250여 명이 총출동했다. 개회사는 판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맡았다.

곽 사장은 “아사 직전이던 회사가 SK와 만나 세계 최초 HBM(고대역폭 메모리)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 원 달성을 이루었다”며 “이 모든 성과는 SK 인수와 과감한 투자, 미래 안목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최 회장이 경영난에 빠진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대규모 장비·설비 투자를 단행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수펙스(SUPEX) 정신, 즉 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개선하는 기업문화가 현재와 미래 SK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이 SK(株) ‘성장 지원 담당’을 겸직하

뒤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SK(株)는 SK그룹 지주회사로 투자 및 사업형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후계자 수습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포럼 첫 세션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재편, 한국기업 해법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징 첸 아시아소사이터티 중국분석센터 소장이온 라인 기조연설을 맡았고, 윤치원 SK 사외이사,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천포럼 2025’는 오는 20일까지 AI와 디지털 전환(DT)을 핵심 주제로 이어진다. 오는 19일에는 멤버사별 워크숍을 통해 SKMS(SK Management System)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SK서린사에서 포럼 성과 점검과 최 회장의 폐막 연설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내달까지 전국서 5만 가구 분양 쏟아진다

일반 분양물량 2.8만 가구 예정 “실수요자 라면 움직일 타이밍”

오는 9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5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상반기 정치·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분양 물량이 밀리면서 비수기에도 대규모 공급이 예고됐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9월까지 전국 분양 물량은 5만2845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만8322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달 중으로 2만4720가구(일반 1만4772가구)가 본격 공급되고, 9월에도 2만8125가구(일반 1만3500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정치·경제 상황이 맞물리며 상반기에는 분양 물량이 제한적이었다”며 “청약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상황이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과 임대료 상승 압박 속에서 실수요자라면 움직일 타이밍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07대 1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2.46대 1 대비 낮아졌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자들의 진입이 제한됐고, 지방은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로 미달 단지가 속출했다. 반면 수도권 핵심 입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청약이 몰리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는 3만5861가구(일반 1만741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 드 서초’와 ‘잠실르엘’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장에 나온다. 한강조망이 가능한 합정역 초역세권 ‘라비움한

강’도 청약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에서는 과전에서 주암장군마을 일대에 선보이는 ‘디에이지 아텔스타’가 분양 예정이며,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와 용인의 기업형 민간임대인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등도 계획돼 있다.

인천에서는 올해 좋은 청약 성적표를 받았던 검단신도시에서 ‘엘리프 검단포레듀’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나올 예정이다. 또한 미추홀구에서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부산 물량이 가장 많다. 사상구에서는 서부산 첫 사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이어지는 ‘더파크 비스타동원’과 함께 부산진구 ‘힐스테이트가야’와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

외국 기업 “韓 투자 매력 부정영향 우려”

>> 1면 ‘경영계, 노란봉투법…’서 계속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 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들도 노란봉투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

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이고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데, 이런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파업의 일상화’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단단계 하도급 구조, 간접 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정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해 왔다”며 “이런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오히려 많이 완화될 것이고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파업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의료·교육 등 정부 제공한 서비스에 가계소득 연평균 924만원 상승효과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통계청, 가구소득 대비 12.9% 수준

정부가 의료·교육 등에서 제공한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계의 소득을 연간 900만 원 이상 불리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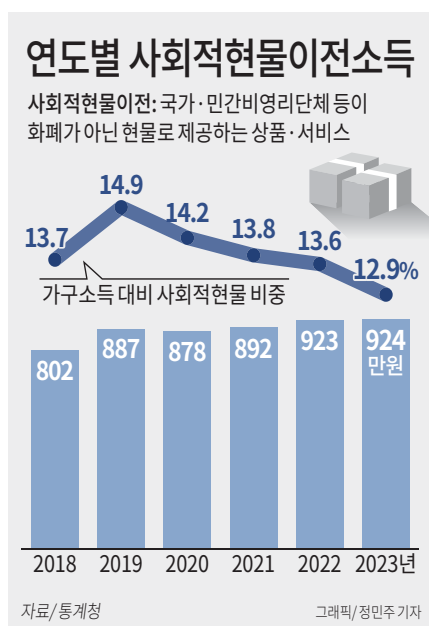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국가·민간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화폐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 국가장학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이 이에 속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4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9%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가구소득의 12.9%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2021년 892만 원, 2022년 923만 원, 2023년 924만 원으로 등으로 증가했다. 2023년 가구소득은 7185만 원 수준이었는데 사회적현물이전을 합한 조정가구소득은 8109만 원까지 높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비중이 낮아졌다.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9%로 고점을



찍은 뒤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 2023년 12.9%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관세부와 이후 철강수출 매달 역성장

>> 1면 ‘美 50% 철강 관세…’서 계속

문제는 관세 강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가 업계 요청에 따라 과생상품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첫 무역조치로 삼은 만큼, 앞으로도 보호무역 기조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철강 규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신규 수입 규제 10건 중 절반인 5건은 철강·금속 분야였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관세대응 119’ 통합창구,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 운영,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법률 자문, 피해 분석, 대체시장 발

굴 등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더해 철강 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합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합량, 수입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업계 요청이 있으면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 수출기업은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합량 확인, 원산지 입증 자료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구윤철 “현장 중심 사고로 혁신정책 발굴, 성과 행정 실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현장 체감 혁신정책 아이템 발굴
AI·디지털 기술 접목해 효율 제고
불필요한 형식 줄여 조직문화 개선
국민 신뢰 높이는 정책 집행 다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 혁신을 위해 모인 직원들과 만나 ‘현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혁신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했다. 또 부처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제7기 체인저스’와 만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업무 혁신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부내 업무수행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꾸려진 청년층 직원이다. 체인저스는 협력(C), 조화(H), 균형(A)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체인저스’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혁신정책 아이템 발굴’ 및 ‘현장 중심 사고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부터 혁신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를 높이기 위해 모든 사고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동안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부내 혁신을 이끌어온 체인저스가 ‘현장중심 문제 해결사’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체인저스가 부처 내 혁신을 넘어 국가 혁신을 위

한 혁신정책 아이템 발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혁신정책 아이템에 대한 실시간 의견수렴 플랫폼을 부처 내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부처 내부망에서 운용 가능한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해 달라”라는 한 직원의 제안에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제안이 오갔다.

이 밖에 대면보고·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 구 부총리는 “혁신을 선도하는 기재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체인저스를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달 하순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재부가 돼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기재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 보다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며 유관부처와의 융합을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LG, 고연령 인력조정… ‘젊은 조직’ 속도

TV사업본부, 2분기 1917억 적자 기록
만 50세 이상·저성과자 대상 희망퇴직
최대 3년치 연봉·자녀 학자금 지원

LG전자가 TV 사업을 맡고 있는 MS(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AI(인공지능)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재조정에 나선 것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 MS사업본부는 구성원 중 만 50세 이상이거나 최근 3년 간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MS사업본부는 올해 2분기 1917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사업부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 전환했다. 시장 수요 감소와 판가 인하, 중국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LG전자

이번 희망퇴직은 대상 직원이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진행한다. 근속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젊고 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다”며 “이는 인력 선순환 차원의 취지”라고 전했다.

최근 50대 이상 직원이 증가한 가운데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평균 연령을 낮춰 AI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G전자 50대 이상 정규직 임직원 수는 1만1993명으로, 전년 대비 1547명 늘었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희망퇴직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희망퇴직 외에도 인력 선순환 차원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만 50세 이상 구성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브라보마이라이프 제도는 1년간 근무시간의 절반을 할애,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창업 및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 JSW와 인도 오디샤주에 일관제철소 세운다

글로벌 철강 성장축 인도 시장 진출
양사 50대 50 동등한 지분 구조 추진

포스코그룹은 최근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본격적 사업 협력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HOA를 통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분야 등 사업 협력에 관한 MOU’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관제철소의 건설 지역, 생산 규모, 지분 구조 등 협력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했다. 일관제철소는 석탄, 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원료 조달 경쟁

력이 높은 인도 오디샤(Odisha)주를 주요 후보지로 선정해 공동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규모는 조강생산량 600만 톤으로 지난해 검토했던 500만 톤에서 확대했다.

이는 인도의 철강소비량이 최근 3년간 9~10%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형 성장시장에 더욱 적극적인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분은 양사가 각각 50%를 보유하는 동등한 파트너십 구조로 추진된다.

이번 HOA 체결을 계기로 양사는 세부 투자 조건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고 일관제철소 건설

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층이 직접 참여하는 정기 교류회를 신설해 사업 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은 “인도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핵심 성장축으로 포스코그룹과 JSW그룹의 오랜 신뢰관계로 구축해온 파트너십이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한국과 인도 1위 철강기업의 협력이 미래가치 창출은 물론 양국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롯데GRS, K-버거로 글로벌 시장 확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튼점 개장
사전 오픈서 일 평균 500명 방문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내 풀러튼 시티에 1호점인 롯데리아 풀러튼점 오픈식을 14일(현지 시각)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GRS는 공식 오픈에 앞서 8월 11일부터 13일 약 3일간 4시간씩 진행한 사전 오픈을 운영을 통해 고객 반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개점 전부터 긴 대기 행렬로 일 평균 500명이 방문해 미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 공식 오픈일인 14일에는 롯데GRS 차우철 대표이사 및 신동권 사외이사 의장, 풀러튼 시티 프레드 정(Fred Jung) 시장, LA총영사관 조성호 부총영사 등의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미국 롯데리아 현지 메뉴 시식회 등을 진행했다.

오픈식 이전에도 오전 5시부터 대거 한 첫 고객을 시작으로 매장 전체를 둘러싼 고객 대기줄이 형성되었으며, 선착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상품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펼쳤다.

롯데GRS 차우철 대표이사는 “오늘은 롯데리아가 미국에 진출 했음을 국

내·외에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국의 소울 푸드인 버거에 롯데리아의 맛과 가치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미국 진출의 성공적인 안착에 의지를 피력했다.

롯데리아 미국 1호점인 풀러튼점은 2023년 10월 롯데GRS USA 법인 설립 이후 약 2년에 걸친 사업 준비를 하며 전체 약 65평 규모의 D/T 형태로 ‘The Original K-Burger’의 슬로건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의 의지를 담아 냈다.

입점한 지역은 풀러튼 시티 내 쇼핑 상권 지역으로 인근 백화점, 마트 등과 거주지 밀집 지역의 상권으로 글로벌 외식 기업이 밀집해 있다.

롯데리아 미국 1호점의 운영 메뉴는 K-버거의 특성을 미국 현지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새우, 비빔 라이스버거 등 총 5종의 버거 메뉴와 6개의 사이드 메뉴로 구성했다.

롯데GRS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몽골 등 동남아 4개국 내 약 320여개 롯데리아 매장 운영과 더불어 지난 5일 말레이시아 파트너 사 계약 체결에 이어 미국 내 롯데리아 직원 1호점 오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풀러튼 시티 내 롯데리아 1호점 오픈식(왼쪽 세번째부터)LA 총영사관 조성호 부영사, 차우철 대표이사 및 프레드 정 풀러튼 시장, 신동권 사외이사 의장 등이 참석해 오픈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GRS



광복 80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광복의 빛, 희망의 내일
NH농협은행이 함께 합니다

NH농협금융

우리 동네 사장님을 향한 가장 든든한 응원

지역 경제의 주인공, 소상공인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은 1:1 무료 컨설팅과
NH소상공인 상생 아카데미로
소상공인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 시위… “민중기 특검에 경고”

광화문 특검사무실 항의 방문
송언석 “당원 명부 털겠다는 건
당원 전체를 범죄자로 본다는 것”

특검, ‘최소한의 명부만 요청’ 입장
국회 찾아 자료제출 관련 협의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18일 광화문 특검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중기 특검 광화문 사무실 인근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검은 2023년 통일교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로 수사관을 지난 14일 보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원 전체 명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명부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있음에 따라, 반탄과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각각 당사에서 농성하거나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 지금 특검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범죄 행위와 무관하게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갔다는 압수수색은 이 특검의

영장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민중기 위한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5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

며 “야당은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수사를 범자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화문 규탄대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형수 법사위야당 간사는 중앙지법 앞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를 발부했다”며 “더군다나 당원 명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핵심요체다. 만약 당원 명부가 어느 순간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유출되고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간사는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 당원 명부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가벼이 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정당이 그나마 민주적인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열던 홍보전을 펼치는 동안에도 민중기 특검팀은 국회 본청을 찾아 국민의힘과 자료 제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광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만약 영장 집행하는 것이 의도라면 지난번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설명하러 온 것이라면 좀 더 들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대통령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 지키는 것”

제1회 을지국무회의

“지금 필요한 건 대비태세·긴장 완화
南北 합의 가능부분부터 이행 준비
을지연습, 한반도 긴장 고조 의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서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평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는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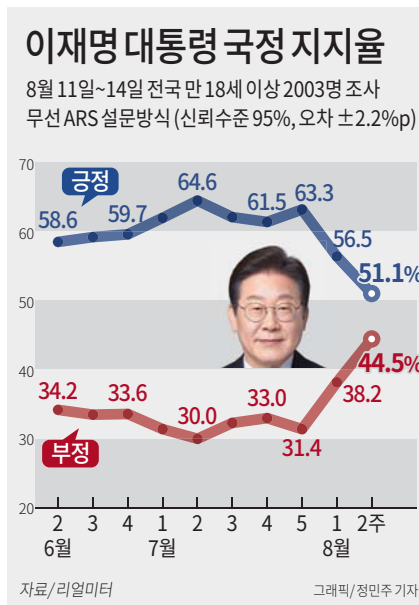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연습계획에 반영해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지지율 ‘51.1%’… 광복절 특사·양도세 논란 등 영향



민주당 지지율 39.9%… 8.5%p↓
국민의힘 지지율 36.7%… 6.4%p↑
8·22 전당대회 선거운동 변수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4.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가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에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56.5%)에 이어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아울러 2주 만에 12%포인트가 하락한 것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13~14일 조사) 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로 양당의 격차가 3.1%포인트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8.5%포인트 급락했고,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논란 등이 주요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헌정사 첫 전(前)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리얼미터의 해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20~21일 당원 대상으로 모바일·자동응답(ARS) 투표를, 같은 기간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 전당대회 본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의 응답률이 높았고, 이는 대통령·여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2주 연속 지지율 하락 및 최저치 기록과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오든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는 11~14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는 무선(100%) ARS을 활용했다. 정당 지지율은 13~14일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사람과 AI가 함께 사는 세상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진
놀라운 가능성의 세상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기술이
만들어갑니다



사망보험금 당겨 쓰는 ‘역모기지’… 노후 현금창구로 부상

연금 공백·저수급률 속 대안 부각
주택연금 가입층 잠재수요 뚜렷
정부, 연내 제도 출시 가능성 커져
교육·보호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

초고령사회 진입과 연금 공백이 겹치자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이나 일시금을 당겨 쓰는 ‘역모기지’ 방식이 새로운 노후 현금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추가 현금흐름 수단에 대한 잠재수요가 확인돼 설계와 보호장치 논의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적연금 수급률은 57%대에 그치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도 월 65만원(2024년 5월 기준) 수준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늘어도 실제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10% 안팎에 머문다. 다층연금의 안전망이 얇아 고령층의 추가 소득원을 넓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지난 3월 65세 이상·금리확정형·보험료 완납·계약대출무(無) 조건의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탐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다. /뉴스시

지해(최대 90%) 해지환급금으로 연금 수령 또는 요양서비스 비용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빠르면 연내 출시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주택연금 현 수급층이 역모기지 방식의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보완소득 장치’로 인식한다는 신호가 뚜렷하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가입의향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종신보험을 1건만 보유한 이들의 역모기지 가입 ‘가능성(오즈비, OR)’은 2건 이상 보유자보다 약 2.28배 높았다.

오즈비란 ‘가입/비가입’의 비율을 비교한 지표로 가입 쪽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2.28배라는 의미다. 보험을 여러 건 쌓아둔 이들보다 한 건만 가진 가입자가 노후자금 보완수단에 대해 더 적극적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가입 의향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주 소득원이 근로·사업소득인 경우 주택연금 의존층 대비 가입 의향의 오즈는 2.82배 컸다. 일·장사소득이 끊길 위험을 체감하는 층에서 ‘사전 확보형 현금흐름’ 장치로 역모기지를 찾는다는 분석이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부교수는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가입의향은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다고 여길수록 가입의향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 단절에 대비하거나 추가 노후소득 마련 수단으로 사망보험금 역모기지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행을 위한 과제도 명확하다.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종신보험 보유자가 가입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중이 적지 않아 제도 이해도를 높일 교육·설명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업계와 금융당국 간 긴밀한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

최경진 부교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제도 교육 및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잠재수요층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차원에서 주택연금과 연계한 마케팅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모델 측면에서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역모기지를 통해 종신까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 및 담보대출 수행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 월세시대 가속… 월세 절반 돌파지역 속출

신규 전세 비중 1년 새 7%p 감소
자금마련 부담에 월세거래 활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줄고 월세 계약이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가운데 전세 비중은 52%로 전년 동월(59%) 대비 7% 포인트(p) 줄었다.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41%에서 48%로 7%p 늘어 두 지표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좁혀졌다.

보증금 대비 월세 수준을 기준으로 한 확장 지표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전세와 유사한 계약 비중은 1년 새 6%p 줄었고 월세와 유사한 계약 비

중은 6%p 증가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전세 유사 계약은 50%대 중반 이하로, 월세 유사 계약은 40%대 후반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동대문구(62%), 강북구(60%), 종로구(59%), 용산구(57%), 금천구(55%), 중랑구(54%), 강남구(53%), 중구(53%) 등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용산·강남·중구·종로 등 중심권은 전세금 마련 부담과 유동성 선호로 월세 거래가 활발했다.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취경자이디센시아’, ‘리버센트SK뷰롯데캐슬’ 등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월세 비중이 높았다. 반면 도봉구·동작구·양천구·성북구·노원구 등은 여전히 전세 중심 구조가 유지됐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구조는 과거 전세 중심에서 전·월세 균형 구조로 서서히 재편되고 있다. 금리 수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증 한도 축소 등 자금 조달 여건 변화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전세금 마련이 까다로워지며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월세 계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 주거지에서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월세 선호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단기간에 역전되기는 어렵고 당분간 월세 중심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jw13@



올해 들어 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이미 100만건을 넘어섰다. 서울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에 달하며 월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뉴스시

하나은행,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지원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자 당 최대 1000만원 지원

하나은행이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2000억원 규모다. 대상 조건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대표자 나이스(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다.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최

대 1000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대출 상품은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제공된다. 한도약정수수료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없어 자금 사용이 불규칙하거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대출 약정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도 지원한다. 보증서 신청은 이달 28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부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케이뱅크, 가장자산 법인계좌 100좌 돌파

지난해 말 대비 2배 증가

케이뱅크는 가장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수가 100좌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49좌)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가장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실명계정 제휴를 통해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법인 고객에게 가장자산 실명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3년 말 첫 법인 실명계정 연동을 시작으로 고객층을 확대하며 국내 가장자산 법인시장을 개척해 왔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등 비영리법인도 새롭게 계좌를 개설했다. 또 다른 가장자산거래소인 코인원 역시 케이뱅크를 통해 법인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가장자산법인계좌를 비롯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법인을 대상으로 법인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 2분기 기준 5200개 법인고객이 총 7500좌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재선 기자

KB국민카드

대학등록금 납부하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KB국민카드는 내달 30일까지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이벤트 응모 후 KB국민 신용카드로 전국 57개 대학의 대학등록금을 200만원 이상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2장이 지급된다. 케이비페이(KB Pay)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페이지 ‘대학등록금 내셨죠? 스벅쿠폰 받으세요!’에서 납부 가능 대학 확인과 납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2~6개월 무이자 할부와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는 40개 생활편의업종에서 5만원 이상 할부 이용 고객에게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우리카드

늦캉스 여기어때 패키지
최대 15만원 단독 할인

우리카드는 늦캉스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 단독 할인 이벤트 ‘여기어때 패키지’를 진행한다.

여기어때 패키지 이벤트는 해당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우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결제 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2만원 ▲200만원 이상 5만원 ▲500만원 이상 결제 시 15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大·中企 협력사 직접적 타격 불가피… “팔수록 손해” 우려

美, 총 1000종에 50% 관세

대미 수출 감소세… 7월 17% 급락
수출계약 취소 등 中企 줄도산 우려
트럼프 2기, 철강·겨냥 보호무역 공세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고율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기계·자동차 부품부터 주방용품까지 생활·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품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 615종에 더해 총 1000여 종이 50% 관세 대상이 됐다. 새롭게 포함된 품목은 ▲철강·알루미늄 구조재 ▲산업·기계 부품 ▲운송수단·부품 ▲전자기기·가전제품 ▲생활소비재 등으로 다양하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를 대폭 확대하자, 기계·자동차 부품부터 생활용품까지 포함돼 국내 철강업계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뉴시스

엔진·터빈·굴착기·변압기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 철강 프레임이 들어간 가구, 세제·비누, 식칼·포크 같은 단순 생활용품까지다. 관

세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부과되며 나머지 부분에는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HD현대건설기계, 한화엔진, 두산에너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의 2·3차 벤더와 중소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미 고율 관세 이후 수출 계약이 취소·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의 마진율이 보통 10% 미만인데 50% 관세가 적용되면 팔수록 손해”라며 “사업장 폐업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기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철강 부문에 집중 적용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는 54건으로 이 중 36건이 철강·금속 부문이었다. 한국산

열연강판, 강철 결속재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캐나다·영국·말레이시아 등도 새롭게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며 보호무역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은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4% 줄었고, 6월에도 8%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6월 월평균 3억 달러 수준에 머물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7월에는 2억 1000만 달러로 17% 가까이 급감하며 올해 들어 처음 월간 수출액이 3억 달러 선을 밑돌았다. 업계는 재고 소진 이후 고율 관세의 직접적 충격이 본격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체는 수출 계약이 취소·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사실상 대미 수출길이 막힌 것이나 다름없어, 장기화될 경우 업계 전반이 버티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KGM “휴가철 여름 바다·가을 산, SUV로 달려요”

액티언·토레스·무쏘EV 흥행 주도
내수·수출 성장세, 7월판매 9620대
친환경 신차 앞세운 SUV 명가 저력

KG모빌리티(이하 KGM)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 명가’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흑자를 달성한 KGM이 3분기 들어 기본 좋은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내수 시장에서 1년여 만에 르노코리아를 제치고 현대차·기아의 뒤를 이었다. 본격적인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친환경 신차인 액티언 하이브리드와 토레스, 무쏘EV가 흥행을 이끌었다. 여름과 가을 가족여행지로 각광 받는 바다와 계곡, 캠핑 등 산악 지역 등에 최적화된 모델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지난 7월 내수 4456대와 수출 5164대를 포함해 총



KGM 토레스.

9620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내수 판매는 5.2% 늘어났고, 수출은 26.7% 증가했다. 르노코리아·한국GM과 달리 KGM은 지난달 내수와 수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동급 차량 대비 넓은 적재공간과 험로 주행 능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KGM의 주력 모델인 액티언과

트랙스는 강력한 주행 능력과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 액티언의 파워트레인인 친환경 1.5L 터보 가솔린 엔진(e-XGDi150T)과 3세대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를 결합해 일상 주행 및 근거리와 가까운 지역을 여행할 때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배기량 대비 동급 최대토크 28.6kg·m, 최고출력 170마력의 1.5터보 GDI 엔진은 최적의 조합과 튜닝으로 기존 엔진 대비 출발 시 가속 성능을 10% 향상했다. 또 익스텐션 플로팅 루프 라인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2열 헤드룸(1001mm)을 갖춰 뒷좌석 동승자에게 안락한 탑승 경험과 골프백 4개를 적재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전용 듀얼 모터 변속기 e-DHT는 EV, HEV, 엔진 구동 등 총 9가지 주행 모드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 도심 주행

시 EV 모드로 94%(CVS-75 기준)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 연비와 도심 연비는 20인치 휠 기준 각각 15.0km/L 및 15.6km/L이다.

토레스는 엔트리 모델인 T5부터 12.3인치 파노라마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주행시 다양한 운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플로팅 타입의 뉴 디자인 센터 콘솔은 동반석과의 개방감을 주는 동시에 수납공간 효율을 높였다. 더 뉴 토레스 밴은 2인승 SUV로 최대 1462L의 적재 공간에 최대 중량 300kg을 실을 수 있다.

KGM의 대표 픽업트럭 ‘무쏘스포츠&칸’도 다양한 활용성을 갖추고 있다. 무쏘 스포츠&칸은 지난 2018년 출시 이후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을 통해 지난 1월 두 가지 트립으로 재구성한 ‘2025 무쏘’ 라인업으로 출시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

노블레스에 멀티존 음성인식 등 탑재

기아가 국내 대표 대형 RV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6 카니발’을 18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상품 개선 모델로 국내는 물론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상승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기아에 따르면 더 2026 카니발은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기본 트림부터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 ▲전자식 룸미러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카니발이 하반기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아 카니발은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량 4만 9680대로 국내 전체 모델 중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인기 트림인 노블레스에 ▲멀티존 음성인식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1열)을 기본 적용해 더욱 편리한 차량 경험을 제공하며,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리어 LED 턴시그널 램프를 기본화해 외장 고급감을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 82종 유해물질 제거 정수기 선택

‘비스포크 AI 정수기 카운터탑’ 출시

삼성전자가 국내 업계 최대 82종의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정수기 신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정수기 카운터탑’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스포크 AI 정수기 카운터탑’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직수관 ▲직수관 99.9% 자동살균 기능 ▲자동 잔수비율 기능 등을 갖춰 한층 더 깨끗한 물 제공과 손쉬운 제품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또 별도 공사없이 싱크대에 올려두고 바로 쓰는 가로 17cm 슬림한 사이즈의 카운터탑 타입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신제품은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공식 승인 기관인 NSF 인터내셔널에서 공식 인증받은 ‘4단계 필터 시스템’을 적용했다. 필터는 미세플라스틱부터 납·수은·크롬 등 유해 중금속, 마이크로시스틴 등 총 82종의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낸다. 이는 국내 출시된 카운터탑 정수기 중 최다 수준이다.

직수관과 출수구에는 오염과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했다. 또한 ‘자동 잔수 비율’을 갖춰 별도의 방문 케어 없이도 손쉽게 위생관리가 가능하다.

/정희준 기자 nauta@

삼성중공업

2.1조 LNG선 6척 수주

연간목표 49% 조기 달성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주사 2곳으로부터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6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5일 오세아니아 선주사로부터 LNG 운반선 4척을 1조 4350억원에, 다른 오세아니아 선주사로부터는 LNG 운반선 2척을 7057억원에 각각 수주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에 계약된 선박들은 2028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48억 달러로, 연간 목표 98억 달러의 절반(49%)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상선 부문은 목표 58억 달러 중 41억 달러(70%)를 수주했으며, 해양부문도 지난 7월 7억 달러 규모의 해양생산설비 예비작업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연말까지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1기를 추가 확보해 목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LNG운반선과 친환경 컨테이너선 등 다수의 프로젝트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FLNG 신조 협상 상황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전경.

최승재 “옴부즈만 조직 재정비… 규제개선 전 과정 전문화”

중소 옴부즈만 취임 1주년 간담회

최 옴부즈만, 2500건 규제 애로 수렴 하반기 ‘종합 규제혁신 협의체’ 가동 “현장의 대변자”로서 정체성 강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전 과정을 전문화, 고도화하기위해 적극 나선다. 기관의 위상도 더욱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처·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규제혁신 협의체’를 새롭게 가동한다.

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해 신속·정확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통해서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옴부즈만 조직



18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을 재정비해 체계화·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 “부서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마련해 규제 개선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직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추가

로 확충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펼친다.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신뢰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연합회장

과 제21대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해 8월 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취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옴부즈만의 지위는 차관급이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결기관으로서 옴부즈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현장의 대변자’로서 정체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 해결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현장 방문 횟수만 84회에 달하며 이를 통해 350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특히 1년간 2500여 건의 규제 애로를 수렴하고 이 가운데 600여 건의 개선과제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외부 전문가, 기관 및 협단체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도 집중했다.

최 옴부즈만은 취임 이후 8명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새로 위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했다.

그는 “올해 3회의 옴부즈만위원회를 여는 등 정기·수시 개최를 통해 현안 대응 속도를 높이고 깊이를 더해 규제 관련 논의가 일회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 이슈 공유 및 공동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16곳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애로 현장 협의회’를 발족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동화일렉트로, 글로벌 완성차기업 전해액 공급

전해액 개발·생산 역량 입증 계약 규모 등 세부사항 비공개

동화기업 계열사인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친환경 자동차에 탑재할 전해액 공급사로 최종 선정됐다.

다만 고객사명과 계약 규모, 공급 차종 등 세부 사항은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18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친환경 자동차의 동력 구동 방식에 최적화된 전해액 개발 및 생산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 순수 전기차(BEV) 시장의 일시적 정체 속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친환경 자동차 전반으로 제품 공급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실적 개선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미국 테네시 생산기지 전경

/동화일렉트로라이트

공급될 전해액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돼 현지에서 고객사의 공장에 납품될 예정이다. 테네시 생산기지는 올해 초 완공된 이후부터 가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미국 현지 배터리 및 완성차 기업과 도합 3500억 원 규모의 전해액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김재민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대표는 “당사가 보유한 전해액 분야 전반의 기술적 우위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글로벌 동향에 따른 신규 투자와 공급망 강화,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정교한 제품군 구성으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점차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엡손, 고속·고정밀 작업 특화 로봇 선보

하이엔드 6축 로봇 ‘C-C 시리즈’ 출시

한국엡손이 고속·고정밀 작업에 특화된 자동화 로봇 신제품을 선보였다.

엡손은 하이엔드 6축 로봇 ‘C-C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엡손로봇의 C시리즈는 고속·고정밀 하이엔드 6축 로봇 라인업으로 이번에 출시한 C-C시리즈는 안전성과 효율을 모두 향상시킨 C시리즈의 가장 최신 모델이다.

신제품 시리즈는 8kg과 12kg의 가변 중량을 지원하며 암 길이는 900mm(8kg·12kg), 1400mm(12kg) 두가지 버전으로 출시돼 정밀 작업을 요하는 제조업 현장에 폭넓게 대응이 가능하다. 포스센서를 활용해 전자·전기 및 자동차 전장 분야의 조립, 이송, 디버링 등 고난도 자동화 공정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춰, 기술집약적 산업군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제품 시리즈에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된 변화는 유지보수 편의성이다. 배터리리스 모터 유닛을 적용해 평균 1년 6개월마다 필요했던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어져 다운타임을 줄이고



(왼쪽부터) 포스센서가 장착된 C8 (암 길이 900mm), C8/12 (암 길이 1400mm) 모델

/한국엡손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전작 대비 매니플레이터 상의 커넥터 수가 줄어 M/C 케이블 교체 작업도 한층 용이해졌다.

전작 대비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

신규 소프트웨어 Epson RC+8.0과 고성능 통합 컨트롤러 RC800-A와 대응됨에 따라 사이클 타임을 기존보다 단축시켰다. 또한 PL=d, 카테고리 3등급의 안전 기능 인증을 획득했으며 STO, SS1, Safety I/O와 같은 핵심 안전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무협, ‘키타 포스트’ 위촉

한국무역협회(KITA)가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현지 무역 전문가와 기업을 선발했다.

무협은 회원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륙별 주요 유망 도시에서 활동할 현지 무역 전문가 1명과 기업 5개사를 ‘키타 포스트’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키타 포스트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시장 상황 변화, 현지 규정 변경, 공급망 재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무협은 해외 지부·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 위촉된 현지 무역 전문가를 통해 ▲시장 정보 수집, ▲바이어 발굴, ▲법인 설립 등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 기반 조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정희준 수습기자 nauta@

웅진프리드라이프, 문호상 신임 대표 취임

문 대표 “고객에 새로운 가치 제공”

웅진프리드라이프 문호상 신임 대표(사진)가 공식 취임했다.

18일 웅진프리드라이프에 따르면 문 신임 대표는 웅진프리드라이프에서 영업대표, 장례사업부문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과 마케팅·브랜딩 전문 역량을 쌓아왔다. 현장 중심의 세밀한 운영과 대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다.

문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상조 1위를 넘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도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객에게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신뢰와 가치를 제공함으



로써 산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중장기 비전과 핵심 전략으로는 ▲국민의 평생 파트너로서 전국적 영업망 및 시장 점유율 확대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과 오프라인 인프라 확충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 실천 ▲전문 인력 육성과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사랑과 존중의 문화를 통해 조직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을 정착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폴스키센터, 韓 스타트업 지원 협약

글로벌 진출 전 과정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미국 시카고대 산하 폴스키센터와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폴스키센터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진공은 지난 2022년 시카고대와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딥테크 분야 보육 ▲전

문가 네트워크 지원 ▲현지 시장에서 사업 검증 등 스타트업의 초기 설립부터 상업화까지 글로벌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 멘토링, 연구실을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유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사업자는 “이번 협약은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딥테크 생태계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창업 기업이 국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연계통합 미들웨어·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METABUILD



네이버 치지직, e스포츠 독점 중계로 스트리밍 시장 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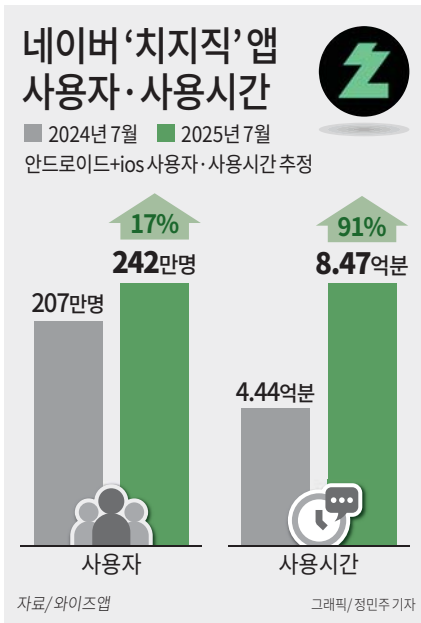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사용시간 각각 242만명·8억4700만분 기록

올해 EWC 한국어 독점 중계권 확보
결승전 당시 동시 시청자 53만명
버추얼·팬덤 커머스 등 서비스 확대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7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와 사용시간 모두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장 1위를 공고히 했다.

18일 IT업계와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치지직의 7월 MAU는 24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고 사용 시간은 4억4400만 분에서 8억4700만 분으로 91% 급증해 앱 출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성장 배경에는 올해부터 확보한 e스포츠월드컵(EWC) 한국어 독점 중계권



이 있다. 치지직은 결승전 당시 동시 시청자 53만 명, 월간 누적 시청자 1500만 명을 기록했으며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EWC는 지난해 온라인 시청자 5

억 명, 현장 방문객 26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경쟁사 SOOP과의 격차도 확대됐다. 모바일인덱스 집계 기준 7월 SOOP(쑤)의 MAU는 172만 명으로 치지직과 약 70만 명 차이가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트위치 철수 이후 치지직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며 스트리밍 플랫폼 주도권을 가져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치지직은 버추얼 스트리머 콘텐츠와 게임 특화 편성으로 플랫폼 체류 시간을 끌어올렸고 연간 방송 송출 건수는 48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20%가 버추얼 크리에이터 방송이다.

네이버는 성남 사옥에 3D 제작 스튜디오 '모션스테이지'를 구축해 버추얼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수익화 모델도 확대됐다. 사용자가 회차별 콘텐츠를 구매해 시청하는 '프라임 콘텐츠' 서비스를 도입했고 미국 메이저리그(MLB)

중계 등 프리미엄 스포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 중이다.

또 '같이보기' 기능을 부분 유료화하고 응원과 굿즈 판매를 통해 팬덤 커머스를 강화했다. 기술적 투자도 병행했다. 치지직은 AI 기반 실시간 번역과 TTS, 4K 고화질 송출을 적용해 글로벌 시청자 접근성과 사용 경험을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분기 기준 네이버 콘텐츠 부문 매출의 16%를 차지하며 주요 수익 축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치지직이 e스포츠 독점 중계와 버추얼 콘텐츠, 팬덤 커머스를 결합해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며 "SOOP과의 격차는 당분간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치지직은 단순한 스트리밍 플랫폼을 넘어 네이버 전체 콘텐츠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웹툰과 웹소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 이어지는

네이버의 콘텐츠 밸류체인에서 실시간 방송과 팬덤 커머스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으며 독점 중계와 버추얼 IP 육성은 타 콘텐츠 사업과의 시너지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치지직이 확보한 실시간 팬덤이 네이버의 글로벌 콘텐츠 확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하면 치지직은 MAU 242만 명, 사용 시간 8억4700만 분이라는 성과로 국내 스트리밍 시장 1위 자리를 굳혔고 콘텐츠 전략, 기술 기반 강화, 수익화 모델이 맞물리며 플랫폼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꼽힌다.

네이버는 치지직을 중심으로 e스포츠와 스포츠 중계, 버추얼 IP 사업, 팬덤 커머스를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허브로 확장하며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한컴위드, 상반기 영업이익 25억… 749.9% ↑ (전년비)

매출 3466억 기록… 64.6% 늘어
자회사 한컴금거래소 실적상승 견인
금 투자 수요 급증에 판매이익 늘어

한컴위드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3466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다.

18일 한컴위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49.9% 급증했다. 2분기 매출도 186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0.4% 성장하며 호실적을 이어갔다.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은 자회사 한컴금거래소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 판매 이익이 늘었고, 이 흐름이 그룹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한컴위드는 이를 기반으로 아로와나 허브와 함께 금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실물연계자산(RWA)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하반기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RWA 시장 선점에 나선다.

한컴위드는 그룹 지배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들어 한글과컴퓨터 지분을 추가 매입해 26.73%까지 늘리며 실질적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했다.

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AI, 데이터, 국방 등 핵심 산업에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한컴은 정부 독자 AI 구축 사업에 참여했고, 한컴인스페이스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국방 분야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최빛나 기자

구글, 초소형 AI 모델 '젬마3 270M' 공개

2억7000만개 매개변수로 구성

구글이 2억7000만개 매개변수로 구성된 초소형 인공지능(AI) 모델 '젬마3 270M'을 허깅페이스, 캐글 등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젬마3 270M은 ▲압축된 구조와 낮은 전력 소비 ▲지시사항 준수 성능 ▲양자화 인식 학습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전체 매개변수 중 약 1억7000만개는 임베딩 매개변수이며, 나머지는 변동형 블록 매개변수로 구성돼 특정 도메인이나 언어에 맞춰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전력 효율성이다. 픽

셀9 프로에서 시험한 결과, 25회 통화 기준 배터리 소모량은 0.75%에 불과했다. SK텔레콤과 스타트업 어댑티브 ML이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도 대규모 범용 모델 대신 젬마3 270M을 활용해 다국어 콘텐츠 관리 작업에서 효율성을 입증했다.

구글은 개발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문서와 최적화 가이드를 함께 제공했다. 구글 관계자는 "젬마3 270M은 맞춤형 솔루션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개발자들이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SK AX-HD한국조선해양 제조분야 AX 협력

SK AX는 18일 HD한국조선해양과 '제조 분야 AX 혁신을 위한 공동 과제 발굴 및 실행 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경기도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렸으며, 양사 주요 경영진과 기술 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제조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과 솔루션을 기획·실증하고, 이를 조선·해양 분야에 특화된 모델로 발전시켜 사업화하는 것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 설계와 건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스마트십·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해왔다. SK AX는 제조 AI 분야 경험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공동 설계·개발해 현장에 최적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핵심은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반 협력 체계다. 선박 설계부터 생산, 인도 과정까지 AI를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공 의존도를 낮추며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설계·생산 명장 에이전트 개발 ▲등대 공장 프로젝트 연계 ▲파블릭 클라우드 기반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한다.

/김서현 기자 seoh@

‘페이커’ 이상혁, LCK 최초 700승 달성

데뷔 이후 13년 만에 세운 기록

‘페이커’ 이상혁이 LCK 최초 700승 고지에 오르며 e스포츠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18일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 따르면 이상혁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열린 2025 LCK 서머 4라운드 2주 차 경기에서 kt 롤스터를 상대로 팀 승리를 이끌며 개인 통산 700승을 달성했다. 2013년 데뷔 이후 13년 만에 세운 기록으로, LCK 사상 첫 사례다.

이상혁의 700승은 현재 2위인 한화생명 e스포츠 정글러 '피넛' 한왕호의 532승과 170승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당분간 깨지기 어려운 기록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 4월 LCK 최초 1000경기 출전을 달성한 데 이어 또다시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현재까지 이상혁은 총 1054경기에 출전해 703승을 기록, 승률 66.7%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상혁 외에도 다수의 기록이 나왔다. 한왕호는 17일 젠지전에서 정글러 최초로 LCK 통산 800경기 출전에 도달했으며, 전체 선수 중 네 번째 보유자를 기록했다.



LCK 최초 700승을 달성한 '페이커' 이상혁 /LCK

디플러스 기아의 '쇼메이커' 허수는 LCK 통산 400승을 기록했고, 한화생명 e스포츠의 '바이프' 박도현과 BNK 피어엑스의 '켈린' 김형규는 각각 500경기 출전 고지에 올랐다. 디플러스 기아 서포터 '베릴' 조건희는 서포터 최초 500킬 기록을 달성했다.

정규 시즌 판도도 막바지로 접어들며 희비가 갈리고 있다. 레전드 그룹에서는 상위권 팀들의 승차가 벌어져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사실상 운곽을 드러냈다. 반면 라이즈 그룹에서는 3위 자리를 놓고 OK저축은행 브리온과 DRX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DRX는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최빛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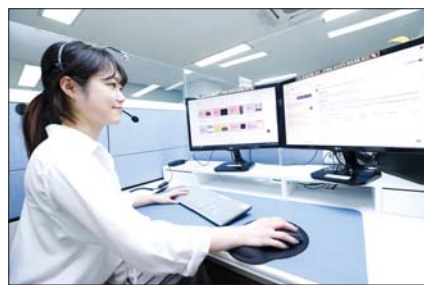
ARS 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 도입

LG유플러스가 ARS(자동응답시스템) 안내를 개편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고객들의 상담사 연결 요청 후 대기 시간을 최대 66%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ARS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누구에게나 같은 상담 메뉴가 제공됐다. 1번 요금 및 납부 문의, 2번 휴대 폰결제 문의, 3번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문의, 4번 가입정보 확인 등의 순서였다. 이로 인해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안내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 유형별 ARS 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를 적용했다.

보이는 ARS 또한 기존 단순 목록을 카드 형식으로 변경해 한 화면에 다양한 정보가 보이도록 메뉴를 개편했다. 고객 특성에 맞춘 최적화 메뉴를 최상단에 배치함과 동시에 자주 사용하는



LG유플러스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ARS(자동응답시스템) 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상담사가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메뉴, 최근 이용 메뉴도 제공해 고객의 탐색 시간을 줄였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상담 요청 후 연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모바일과 홈(IPTV·인터넷)에서 각각 16초, 14.7초가 걸린 상담사 연결 평균 대기 시간은 지난 7월 기준 6.7초와 3.7초로 줄었다.

상담사 연결 없이 셀프 처리하는 건수가 지난 3월은 일 평균 868건이었으나 4월엔 3746건으로 약 4배로 늘면서 상담사의 응답 시간이 빨라졌다.

/김서현 기자

‘李 썬친’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코스피 5000’ 시험대

권역별 업무보고 첫 행보

‘금융위와 협력’ 초반평가의 관건
시민사회 출신 경험 부족 우려도
홍콩ELS, LTV담합 등 방향성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법률 조력자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하며,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썬친’으로 여겨질 정도로 두터운 신뢰를 받는 만큼, 정권 초대 금융감독 수장으로서의 상징성과 존재감은 단숨에 부각됐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시민사회 출신이라는 배경 탓에, 과연 정책 리더십과 시장 조율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원장은 18일 권역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들어갔고, 조만간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과 회동도 예정돼 있다. 정권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와의 협력 관계를 얼마나 매끄럽게 정립하느냐도 초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반 평가의 관건이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불거졌던 금감원-금융위 간 엇박자 재연을 막기 위해 양측 모두 ‘원팀’ 기조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새 리더십 아래 금감원이 맞닥뜨린 핵심 과제는 단연 이재명 정부의 금융 비전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기반 조성이다. 단순한 지수 목표가 아니라, 기

업지배구조 개혁, 불공정거래 척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이 전제된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강조해온 인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상장사 회계감리, 공시제도 개편, 기업공개(IPO) 심사 등

주요 자본시장 기능에 금감원의 감독 잣대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경영 감시에 방점이 찍히는 구조다.

이 같은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과 맞물려, 금융사에 대한 감독력도 다시 정비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현안이 홍콩 ELS 사태다. 16조원대 손실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일부 은행들은 수조 원대 과징금을 앞두고 있다. 전임 이복현 원장은 자율배상 유도를 통해 감경의 길을 열어줬지만, 이 원장이 이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장에선 시민단체 경력과 대통령 신임을 모두 갖춘 이 원장이 ‘원칙적 판단’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무겁게 보고 있다.

이어 LTV 담합 의혹도 이 원장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설정을 담합으로 간주하며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 원장은 취임 첫날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과격한 액션은 없을 것”이라

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시장은 그가 어떤 방향성을 내놓을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책임 경영 강화 역시 이 원장의 과제로 주어졌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금융지주·은행 대상 ‘책무구조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제재 수위와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CEO 등 임원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는 정권 차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보안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사기 계좌 동결 등 민생금융 범죄 대응도 제도화가 예상된다.

금융권에선 이 원장이 전임자처럼 활발한 언론 소통을 택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정책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워낙 단단한 만큼, 메시지 하나하나가 시장과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며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은행·증권주 ‘주춤’… “당분간 변동성 장세” ‘15% 룰’ 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중단

상반기 최대 실적에 정부 압박
세제개편 등 불확실성 더해져
내달 ‘대주주 기준’ 결론날 듯

질주하던 두 마차(금융지주(은행), 증권) 주가가 멈춰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 탓이다.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스무날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정·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의 목표주가는 15만에서 15만5000원(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까지 뛰었다.

신한지주의 목표주가는 10만원(NH투자증권)으로 상향됐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도 목표주가가 각각 3만1000원(유안타증권), 12만원(키움증권)으로 상향됐다.

금융지주의 목표주가 상향 배경에는 실적이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1년 전(9조3456억원)보다 10.5%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9조9380억원)를 넘어선 데다 반기 성적표 기준 역대 최대다.



여의도 금융가 빌딩 전경. /뉴시스

여기에 자기자본이익률(ROE) 회복과 보통주자본비율(CET1) 안정성, 자기주식 매입 확대 가능성 등도 장밋빛 전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상승세를 타던 주가는 최근 주춤한다.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낸 금융사에 대한 정부 압박이 커질 것이라 전망에,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다.

지난달 25일 12만7000원까지 치솟았던 KB금융은 이날 종가 기준 10만7200원으로 주저앉았다. 신한지주도 지난달 25일 52주 최고가인 7만3500원을 찍은 후 6만7500원까지 떨어졌다. 하나금융

지주도 지난달 9일 9만7300원까지 치솟았으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8만2800원으로 하락했다. 우리금융지주도 7월 2만7150원을 찍은 후 2만47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장 중 변동성도 커졌다.

신영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 증권주도 변동성이 커졌다. 오락가락 당·정의 행보 때문이다.

당분간 금융주와 증권주의 변동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은 의견 수렴 후 8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는 10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어했지만 만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란의 대주주 기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8월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실무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지나는데”라며 “9월 세 번째 고위당정협의 회에서 또 한 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1차 26종목 20일부터 거래 불가

2차 53종목 9월1일부터 한달간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15%룰’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에서 총 79개 종목이 한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된다.

18일 넥스트레이드는 공지사항을 통해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장의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종목을 매매 체결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알렸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대체 거래소의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 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먼저 1차 제외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 2차 제외 종목은 총 53종목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제외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넥스트레이드의 성장성이 현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황세은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투자자 사이에서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소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이 방증됐고, 시장 수요를 감안해서라도 장기적으로 현행 ‘15%룰’을 20~25%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KCGI운용, 공모펀드 순자산 2배 ‘정충’

사명변경 2년만에 111% 증가
사모펀드 시장진출 속도 내기로

KCGI자산운용이 사명 변경 2년 만에 공모펀드 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업계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며 주식형 펀드가 성장을 주도했다. 회사는 2주년을 계기로 채권·대체자산 운용 역량 강화와 사모펀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8일 KCGI자산운용에 따르면 공모주식형·혼합형 펀드 순자산은 2년 전 9206억원에서 1조9468억원으로 늘어나 11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업계 동일 유형 평균 증가율인 6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사모펀드를 제외한 전체 공모펀드 순자산도 1조7255억원에서 2조9548억원으로 7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KCGI코리아펀드가 2년간 4200억원 증가하며 순자산 7022억

원을 기록했고, KCGI코리아목표전환채권혼합펀드(2720억원), KCGI초단기우량채(2024억원) 등도 2000억원 이상 늘어나며 외형 확대를 이끌었다.

회사는 2주년을 맞아 장기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동안 주식형 펀드에 집중해온 운용 역량을 토대로 채권형, 글로벌, 대체자산 등으로 사업을 넓히고 사모펀드 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대체운용 본부를 확대·재편했고, 지난 7월에는 채권운용팀을 채권운용본부로 격상해 인력을 충원했다. /허정윤 기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민간자본 공급

금투협, 회계처리 ‘FV-OCI’ 인정
불확실성 해소… 사업집행 속도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장기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 자금 공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회계기준원으로부터 만기를 정하지 않은 폐쇄형 펀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펀드를 통해 장기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경우 평가손익이 매년 당기손익(FV-PL)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부담이 제약 요소로 작용해왔다. 실제 인프라펀드 결성 건수 기준 상위 6개 운용사를 집계한 결과, 2020년 2조1000억원에 달했던 인프라펀드 규모

는 2024년 6000억원으로 줄었으며, 보험업권은 올해 들어 신규 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회계 처리 방식이 FV-OCI로 인정됨에 따라 인프라 투자 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올해 기획재정부가 18조5000억원 이상 규모로 발굴 예정인 환경·도로·철도 등 신규 인프라 사업에서 민간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의 집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방지 및 균형 발전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에서도 금융회사의 참여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윤 기자

6300억 규모 특별금융 공급 개시 부품업체 관세 충격 완화 기대감

산업부, 수출금융 지원 협약 체결
무보 보증기간 확대·보증료율 인하
협력사 저리 자금 조달 숨통 기대
디와이오토 등 첫 수혜기업 등장
전략산업 대미 협력·지원책 병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에 대응해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해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에 6300억원 규모 특별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사인 디와이오토에서 김정관 장관, 성 김 현대차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열고 자동차 협력사를 위한 특별 저리 금융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와 하나은행이 4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특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협력사에 공급한다. 완성차 기업이 직접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신설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수출공급강화보증)’은 협력사가 완성차사에 납품할 때 필요한 제작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나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2% 포인트 낮추고, 무보는 보증한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0.65%로 낮췄다.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대신 부담한다.

첫 수혜기업은 이날 간담회가 열린 디와이오토다. 김 장관은 임연찬 디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특수선 제작 야드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이오토 대표에게 ‘1호 보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1978년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파워 윈도우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생산한다. 이번 지원으로 2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 대표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돼 안정적 납품뿐 아니라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디와이오토에 이어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각각 2호, 3호 보증서가 전달됐다. 이들 기업엔 각각 150억원, 80억원이 자금으로 지원된다.

성 김 현대차 사장은 “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금융상품은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7월까지 우리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에도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하고 “관세 조치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에서 대미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금번 관세 협상 타결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디와이오토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임직원들을 격려했고, 최근 폭우와 폭염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어촌공사, 중대재해 예방 총력전

700곳 건설현장 전수 점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700여 개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공사 전 사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국 고위험사업장別に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선정해,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이 특징이다.

공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5대 중대재해를 비롯한 12대 핵심 안전 수

칙에 기반 침하 상태 등 집중호우 관련 점검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수 점검은 사업 현장을 담당하는 전국 지사와 사업단이 주관하며, 본사는 산업재해 이력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선제적 점검과 예방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는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사람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부발전, 지역주민·임직원 가족 여름 캠프

태안 이전 10주년 ‘위피 썸머 캠프’ 성료

한국서부발전은 본사 태안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임직원 가족이 함께하는 ‘위피 썸머 캠프(Weepy Summer Camp)’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캠프는 충남 태안 지역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과 서부발전 임직원 가족 등 약 160명, 40여 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전주와 충남 보령 일대에서 지난 6일~16일까지 총 5차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주 한옥마을·‘완산병커 더스페이스’ 전시 관람 ▲봉어섬 생태공원·임실치즈테마파크탐방 ▲온천·수영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자연 체험과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연 관람과 보령 해상유람선 투어로 여정을 마무리했다.

지역 주민들은 “평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아이들과 웃고 대화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서부발전이 마련한 따뜻한 기회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캠프가 가족 간 사랑을 되새기고 10년간 함께해 온 지역 이웃 간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본사 태안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임직원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6일~16일까지 총 5차례 2박3일 일정으로 ‘위피 썸머 캠프(Weepy Summer Camp)’를 개최했다. /서부발전

LPG 셀프충전 허용·반려동물품 삼푸 규제 완화

공정위, 관계부처 협의 후 개선방안
소비자 편의 확대·사업자 부담 완화
고령화·친환경 대응 규제 개선안 포함

올해 하반기부터 LPG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반려동물용품삼푸 등 동물용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 9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소비자 편의 확대와 사업자 부담 완화다. 먼저 오는 11월부터는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도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LPG 충전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해야 했으나,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인건비 절감으로 충전소 경영난이 완화되고, 야간·공유일 충전 불편이 줄어든다. 환경 친화적 연료인 LPG 차량 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또 반려동물용 삼푸·린스·향수 제조시 약사·한약사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뒤야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그간 반려

동물용 삼푸 등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별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뒤야 했다. 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겸임이 불가해 제조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람이 쓰는 삼푸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물품을 다룰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 관리자를 뒤야 해 화장품 제조업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 개발과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약사·한약사가 아니어도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제조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어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화장품 제조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고령화 사회에 맞춘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져 혈압·혈당 측정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동상표 제품 위탁 구매시 인증 의무면제 품목을 인쇄·광고물 기준으로 23개에서 36개로 확대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시 모든 조합원사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안전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 항목도 명확히 규정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요건 중 수집·운반 차량 적재능력 기준이 없음을 분명히 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했다.

이밖에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전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올해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진입제한, 사업 화물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등급제 맞춤 교육

전국서 12개 직종 승급·기초교육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2025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현장 경력, 자격, 교육·훈련 이력 등을 종합 반영해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공 품질 제고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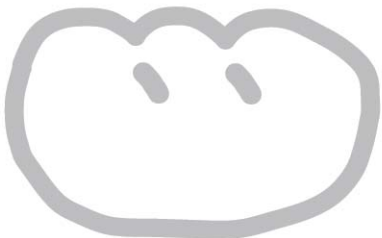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공제회에 위탁해 시행하는 현장 중심 과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식비·교통비

까지 지원된다.

교육과정은 ▲형틀목공, 건축목공, 콘크리트, 비계, 견출, 코킹, 수장, 석공, 창호, 일반기계설비, 일반특수용접, 조경 등 12개 직종의 ‘승급교육’과 ▲건설업 입문자를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등 3개 업종의 ‘기초기능교육’으로 나뉜다.

교육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기관별로 순차 진행된다. 신청은 교육기관에 전화 접수하면 되고, 세부 일정은 ‘건설기능플러스’ 안내 페이지(<https://cw.or.kr/plus/skill/system/skillGradEdu.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경북도, 추경 예산 1.7조 편성… 산불피해 복구사업 등 추진

(8850억)

‘민생경제 활성화’ 중점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1.3조 발행
APEC 정상회의 준비 박차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재건 사업을 위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조 7226억 원 규모로, ▲민생경제 활성화 ▲산불 피해 복구와 재창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북도는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 회복을 넘어 경제·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투자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7912억 원의 긴급 민생 회복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7259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외식, 문화·체육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확대해 약 1조 3000



지난 14일 ‘2025년 APEC 정상회의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억 원을 발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꾀한다.

또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해 8850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사유시설 복구에 7217억 원을 투입해 도로·상하수도·폐기물처리 등 기반시설과 생활·안전 인프라 정상화에 나선다. 아울러 위험목 제거, 산사태 예방, 산불대응센터 설립 등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에도 1338억 원

을 편성했다.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에는 295억 원을 투입해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재창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신설된 ‘산림재난 혁신사업단’과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을 중심으로 특별도시재생사업, 마을단위복구 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APEC

정상회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행사 전 시범 운영을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수송 기반 확충과 문화동행 축제도 연계해 국민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도정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도민의 민생에 숨통을 틔우고 산불로 상처 입은 마을과 산을 되살려내겠다. 새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APEC 행사를 세계적으로 성공시켜 경북의 미래에 힘과 희망을 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안동시

신·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안동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6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54억 원을 확보하고, 총사업비 120억 원 규모의 ‘신·구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안동 중앙신시장과 구시장 사이 안흥동 279-49번지 일원 5511㎡ 부지에 150면 규모의 노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주차장 진입로와 인근 교통 여건을 고려해 부지를 선정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방문객의 주차 편의성과 양측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경남도-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 콘텐츠 팝업 스토어 개최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창원 NC파크 야외광장에서 경남 콘텐츠 IP 팝업 스토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Pop Up to the Space League! 우주리그 야구단 대모집’이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NC다이노스의 마스코트 단다·썰리와 경남도 홍보 캐릭터 버리의 만남 및 우주리그 팀원 모임을 테마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의 IP와 NC 다이노스 IP를 융합한 한정판 굿즈 및 실감 콘텐츠를 도민에게 선보인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해양진흥공사

해운금융 분야 심화과정 개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5년 해운금융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심화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8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19일까지 모집 중인 기초과정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참가 교육생들에게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해운금융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운·금융 산업 종사자 가운데 15명을 선발해 내달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9회에 걸쳐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지방보훈청

독립유공자 유족 시구·시타 행사

부산지방보훈청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지방보훈청은 지난 15일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연스프링스와 협력해 독립유공자 유족 시구·시타 행사를 진행했다.

백산상회를 설립해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한 백산 안희제 선생의 손자 안경하 님이 시구, 대한독립당과 혈성대 등에서 군자금 모금과 독립운동을 전개한 세창 백낙주 선생의 손자 백기환 님이 시타를 담당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 중앙상가 영일만친구 야시장’ 개장식 사진.

포항시, ‘영일만친구 야시장’ 본격 운영

개장 첫 주 5만여명 인파 몰려
원도심 상권 회복 가능성 확인

포항시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중앙상가 거리문화축제’와 함께 ‘포항 중앙상가 영일만친구 야시장’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포항 중앙상가 영일만친구 야시장’은 내달 28일까지 7주간 매주 금·토·일요일 다양한 테마로 운영된다.

개장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의

원, 포항시의원, 전통시장 상인회, 시민, 관광객 등이 함께했다.

시는 롯데시네마 인근에 신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편의를 높였으며, 빈 점포를 휴게공간과 청년 창업 팝업 스토어로 조성했다.

개장 첫 주인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연휴 기간 5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중앙상가 일대는 늦은 밤까지 북적였고, 지역 원도심 상권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해남군-철도공사, 철도관광 활성화 맞손

관광자원 연계 체류형 상품 개발

해남군은 오는 9월 해남역 개통을 앞두고 철도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한국철도공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33개 지자체가 체결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의 3차 협약으로, 전남 5개군을 포함해 전국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각 지자체는 기차여행 만들기, 자유여행 상품,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된 철도연계 관광상품인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을 운영하게 된다.



해남군은 지난 14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

9월 말부터 기차를 이용해 여행할 경우 기차운임 50% 할인과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차운임 할인 외에도 해남의 관광자원을 철도와 연계해 보다 매력적인 체류형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택시 연계, 주요 관광지 및 체험상품 할인, 지역상권과의 협력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봉화군교육발전추진, 해외문화체험 장학사업

지역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가 지역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표로 베트남 자매도시와 주요 도시를 탐방하는 해외문화체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3박 5일간 관내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봉화군 국제자매결연도시 청소년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베트남 뜨선시를 비롯해 하노이, 하롱베이 등 주요 도시를 둘러보며 다양한 현지 문화와 역사적 유

산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해외문화탐방은 지역 청소년에게 새로운 시야와 도전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장학사업이다. 봉화군의 국제자매도시와 연계한 실질적 교류를 통해 청소년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박현국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는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고 미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TP, ‘지산학 기술매칭 데이’ 연다

부산TP 협력… 기술보증기금 등 참여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는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와 함께 기술교류의 장인 ‘2025 동남권 지산학 기술매칭 데이’를 오는 28일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남도, 부산시, 울산시가 동남권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성과를 지역 기업의 기술 수요와 직접 연결해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

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남TP와 부산TP를 주축으로 동남권에 속하는 기술보증기금,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부산연합기술지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기술사업 관련 주요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경남TP 누리집 홍보마당 게시판이나 ‘지산학부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다이소·C커머스 대응… 5000원 이하 상품으로 승부수

이마트 '5K PRICE' 론칭

상품 162종, 하반기 250종 추가
모든상품 880원~4980원 설정
“상품 용량 줄이고 가격도 낮춰”
이마트·에브리데이 370곳 판매

이마트가 5000원 이하로 상품으로 구성한 신규 PL(자체 브랜드) '5K PRICE(오케이 프라이스)'를 선보이며 초저가 시장 경쟁에 뛰어 들었다. 초저가 상품을 내세우며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다이소와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이달 14일 상품 162종을 선보인 데 이어 하반기 250종으로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케이 프라이스는 모든 상품 가격을 880원부터 4980원으로 설정한 게 특징이다. 가공식품·일상용품 등 생활필수품 위주로 상품이 구성됐다.

◆소용량·근거리로 틈새 공략

이마트가 PL 브랜드를 출시한 건 2015년 노브랜드 이후 10년 만이다. 저렴한 가격대를 강조한 PL 상품이라는 점에서 노브랜드와 유사해 보이지만, 타겟 시장과 전략은 확연히 다르다.

노브랜드가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성비 제품이라면 오케이 프라이스는



이마트가 13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전 품목을 5000원 이하로 구성한 새로운 PL '5K PRICE(오케이 프라이스)' 론칭을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생활에 밀착해 저렴한 가격에 자주 구매할 수 있도록 동네 매장에서 판매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오케이 프라이스 제품은 이마트와 에브리데이 370여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이마트는 지난해 7월 에브리데이와 흡수 합병했다. 올해 1월부터 통합 매입 체계를 만들었다. 이번 PL은 양사가 합병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PL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오케이 프라이스는 노브랜드 제품과 비교해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낮췄다”며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근거리에서 도보로 구매하는 고객이 많기에 소용량에 대한 요구가 많아 오케이 프라이스만의 차별점이 있

다”고 말했다. 오케이 프라이스는 상품 용량과 단량을 기존 이마트 판매 상품과 비교해 25%에서 50%가량 줄였다.

실제로 노브랜드 스파게티 면이 1kg 2780원에 판매되는 반면 오케이 프라이스는 500g 1580원이며, 노브랜드 슬라이스 치즈 역시 (900g 9980원) 오케이 프라이스 제품은 288g으로 (3980원) 더 가볍게 출시됐다.

◆초저가 상품 내세워 경쟁 맞서

오케이 프라이스 출시는 이마트의 위기감과 연결된다. 다이소는 지난해 영업이익 371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했다. 균일가 상품이 오프라인에서 통하면서 고객 수를 늘리

고 있다. C커머스로 잇따라 초저가 상품을 선보이며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달 초 ‘천원마트 한국발송관’을 열어 300원부터 1만원까지 낮은 가격에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니소도 지난해 한국 시장에 재진출하며 점포를 5개까지 늘렸다. 중국 판 다이소라 불리는 ‘요요소’도 이달 전북 군산시에 국내 1호점을 열 계획이다. 초저가 시장을 두고 유통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마트는 통합 매입과 글로벌 소싱을 통해 올해 2분기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을 넘어 화장품 등 부티 영역까지 ‘초저가’ 전선을 확대해 시장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이마트는 지난 4월과 지난달 LG생활건강과 협업해 4000원대化妆품을 선보였다. 올해 10월에 추가 제품을 선보이며 저가 화장품 라인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마트뿐만 아니라 여러 유통업체가 초저가 화장품 경쟁에 뛰어 들었다. CU는 부티 제품에서 특화 점포를 늘리고 기초, 색조, 기능성 화장품에서 초저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GS25도 올해 5000원 미만 초저가 화장품을 출시했다. 제품 용량은 10ml에서 30ml로 소용량인 게 특징이다. 다음 달부터 매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500여 점포를 선정해 건강·부티 특화 매대를 설치한다. 다이소는 최대 5000원에 화장품을 판매하며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다이소 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144% 상승했다.

◆10여 년 전 법이 만든 규제 역차별

다만 이마트 앞에는 잠재적 어려움도 있다. 가장 큰 문제로 규제 역차별이 꼽힌다. 이마트는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을 받지만, 다이소는 ‘생활용품점’으로 등록돼 규제를 휴일 없이 영업하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C커머스 역시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범망 밖에 있다. 10여 년 전 오프라인 환경에 맞춰진 법이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이마트 점포 4곳 중 1곳(132개 중 33개)에 다이소가 입점해 있어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마트 관계자는 “다이소는 비식품 위주인 반면, 오케이 프라이스는 식품 비중이 높아 상품군이 크게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통업계가 다 같이 뛰어든 경쟁 환경을 뚫고 이마트의 초저가 제품 전략이 통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고구마소주에 매운맛 더해 이색조합 하이볼 맛보세요”

롯데마트·슈퍼 ‘야마야 스파이스 토마토 하이볼’

롯데마트·슈퍼가 이달 21일 일본 고구마 소주를 활용한 ‘야마야 스파이스 토마토 하이볼’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RTD(각테일이나 하이볼 등 섞어 마시는 주류)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상품화한 것) 하이볼에는 주정을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 전통 증류주를 기반으로 생산해 차별화를 뒀다. 고구마 소주 특유의 깊이 있는 풍미에 고추와 토마토를 더했다.

베이스가 되는 고구마 소주는 일본 미야자키현 사이토시에 위치한 150년 전통 증류소 ‘야마야’에서 생산된 ‘크레이지 옥토퍼스(Crazy Octopus)’를

사용했다. 올해 국제 주류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프리미엄 일본 소주다.

매운맛에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한 이색 조합을 위해 롯데마트 주류 상품 기획자는 국내 1세대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협업했다. 6개월간 수십 차례 테스트를 거쳐 토마토 반죽을 섞은 최적의 배합을 만들어 4.5도 저도주를 생산했다.

롯데마트·슈퍼 김중현 주류팀 상품 기획자는 “야마야 스파이스 토마토 하이볼은 전통과 추세가 조화를 이룬 이색 상품”이라며 “시중 하이볼과 차별화된 맛과 경험으로 Z세대는 물론 프리미엄 주류를 즐기는 3040 흡술층까지 만족시킬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수습기자

오아시스마켓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획전

오아시스마켓이 이달 18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획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식탁 위의 신뢰, 인증마크 하나면 충분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주원료 국내산’, ‘식품첨가물 無 원칙’, ‘장인의 정성’ 등 전통식품 품질인

증의 핵심 가치를 전달한다.

기획전은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2차는 다음 달 22일부터 28일까지 각각 7일간 진행되며, 전통식품 인증 제품을 상시로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식품 상설관’도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기획전 기간 중 인증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손종욱 수습기자

최대 90% 할인 ‘그랜드뷰티컬리페스타’

컬리, 오는 25일까지 개최

컬리가 6000여개 스킨, 바디케어, 선크어, 럭셔리 뷰티 등 상품을 최대 90% 저렴하게 선보이는 8월 ‘그랜드뷰티컬리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랜드뷰티컬리페스타는 매달 진행하는 뷰티컬리페스타의 혜택을 강화해 분기당 1회 진행하는 행사로 이달 25일까지 개최한다.

매일 오전 11시 열리는 무작위 할인 쿠폰과 뷰티컬리 첫 구매 쿠폰팩, 함께 구매하면 배송비 0원, 릴레이 브랜

드 혜택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평일 최대 50%, 주말 최대 90% 할인을 제공하는 무작위 쿠폰은 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럭셔리 뷰티 쿠폰, 컬리카드 쿠폰, 카드사 쿠폰 등도 준비됐다.

신규 입점 브랜드 사은품 행사도 준비됐다. 브랜드 인기 상품은 할인가에 선보인다. 뷰티컬리에서 구매한 상품을 자랑하는 댓글을 남긴 이용자 중 40명을 선정해 1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잘 산 뷰티템 자랑 대회’도 진행한다.

/손종욱 수습기자

농심 ‘와사비새우깡’ 2주세 180만봉 판매

배우 강유석 모델 디지털광고 공개

농심이 지난 4일 출시한 스낵 ‘와사비새우깡’이 출시 2주 만에 180만봉 판매를 돌파했다. 이는 역대강 출시 2주간 판매량(130만 봉)보다 약 40% 높은 수치다.

농심은 새우깡 특유의 고소한 맛에 알싸한 와사비 향이 어우러진 와사비새우깡이 안줏거리를 찾는 수요는 물론, 일상 속 기분전환이 필요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심은 와사비새우깡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배우 강유석을 모델로 발탁하고, 이번 주부터 디지털 광고를 공개한



다. ‘알던 맛이 쟁해졌다’를 카피로 누구나 사랑하는 국민 스낵 새우깡이 와사비를 만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인다는 내용을 강렬한 음향으로 전달한다.

이 외에도 농심은 와사비새우깡의 개성 있는 그린 브랜드 컬러를 살려 도서, 주류, 식기 등 MZ세대 인기 브랜드와 협업할 계획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



대표 상품 중 하나인 블루핏 리브티셔츠.

/신세계라이브쇼핑

신세계라이브쇼핑 F/W시즌 신상품 선택

신세계라이브쇼핑이 가을을 앞두고 F/W(가을 및 겨울) 시즌 신상품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9일 오전 ‘서아랑의 쇼퍼라이프(아쇼라)’를 통해 방송되며 이후에도 다양한 가을 상품을 지속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신세계라이브쇼핑의 단독 패션 브랜드인 블루핏과 에디티드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측에 따르면 블루핏은 신세계라이브쇼핑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판매되는 대표 브랜드다. 출시 2년여 만에 주문 금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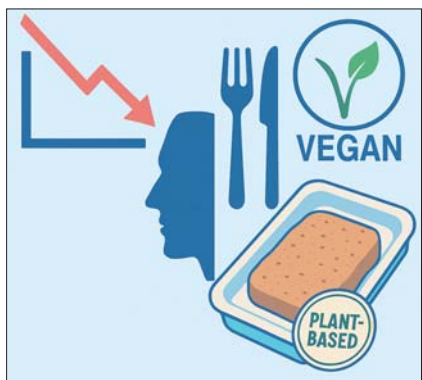
에디티드는 섬세한 테일러링과 디테일, 고급 소재로 완성된 브랜드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판매하는 위켄드 컬렉션은 가볍게 걸치기 좋은 점퍼와 스트링 팬츠를 스타일리쉬하게 선보인다.

야소라는 지난 2년간 누적 판매액 1000억원을 넘었으며 약 300만 세트 상품이 판매됐다.

/손종욱 수습기자

‘대체육’ 맛·가격 장벽… 기업들, 비건식품사업 손 떼다

美 미온드미트, 흑자전환 실패
네슬레, 비건제품 ‘킷트V’ 단종
농심 ‘포리스트 키친’ 영업 종료
신세계 ‘베러푸즈’도 적자 확대
“수요 꺾였지만 장기적 가능성 커
‘플렉시테리언’ 타깃 접근해야”



Chat GPT가 생성한 ‘비건’ 이미지.

친환경·윤리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주목받았던 비건 식품 시장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식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보다 실속을 중시하면서 수요가 둔화한 데다 대체육의 맛과 품질 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 자체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대체육 대표기업 ‘임파서블푸드’는 2021년 70억 달러(약 10조 원)까지 치솟았던 기업가치가 지난해 14억 달러(약 2조 원)로 80% 이상 증발했다.

비건 대체육 브랜드 ‘미온드미트’ 역시 2021년 1억7493만 달러였던 영업손실이 불과 1년 만에 3억4277만 달러까지 불어나며 흑자 전환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 네슬레도 연이어 철수를 택했다. 네슬레는 최근 유럽에서 대표 비건 제품 ‘킷트 V’를 단종했다. 앞서 2023년에도 비건 브랜드 ‘가든 고메 미트-프리’, ‘윤다알트-데어리’의 판매를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네슬레가 손을 뗐다는 사실은 비건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단순 유행으로는 장기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구조적으로 비건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의 경우 빠르게 시장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

농심은 2022년 문을 연 비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포리스트키친’을 지난해 12월 30일부로 영업을 종료했다. 비건 파인다이닝이 아직은 시장 수요에 비례한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물성 식품 브랜드 ‘베지가든’을 중심으로 대체식품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대중적인 가격대에서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가정간편식 중심의 대체육 제품 강화로 사업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육과 비건 식품 사업에 힘주던

신세계푸드의 경우, 미국 법인 베러푸즈는 지난해 18억 6100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전년(11억 7800만 원) 대비 적자 규모가 약 58% 확대됐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건 메뉴 확대를 선언하던 외식·프랜차이즈들도 줄줄이 발을 빼는 모습이다. 이랜드이츠의 비건 아이스크림 ‘비긴스크림’, 버거킹의 ‘플랜트와퍼’, 도미노피자의 ‘식물성 미트피자’, 노브랜드버거의 ‘베러버거’ 등이 잇달아 단종됐다.

업계가 지목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과 시장 규모다. 실제로 대체육은 일반 육류보다 최소 1.5배, 평균 2~3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세계푸드 ‘베러미트’ 런천캔햄이 일반 제품보다 낱개 기준 약 2.5배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한국리서치 설문문에 따르면 비건 제품을 사지 않은 이유로 73%가 ‘구매 필요성을 못 느껴서’, 25%가 ‘가격이 비싸서’를 꼽았다. 게다가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완전 채식주의자는 훨씬 적다. 사실상 ‘틈새 시장’ 수준에 머무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비건 시장이 과거 기대만큼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체육이 일반 육류보다 맛이나 영양학적으로 뛰어나다는 인식이 형성되

어 있지 않은데다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건 제품 수요가 꺾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친환경·윤리 소비에 호응도가 높아 장기적으로는 대체식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 고객층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완전 채식주의자는 대체육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고기 섭취를 줄이려는 ‘플렉시테리언’을 주요 타깃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의 ‘플랜테이블 왕교자’, 풀무원의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등이 대표 사례다. 합리적인 가격대와 익숙한 메뉴를 앞세워 일반 소비자가 부담 없이 비건 식단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비건을 ‘윤리적 소비’가 아니라 ‘건강한 일상식’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는 것.

또 해외 시장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K푸드 열풍과 맞물려 한식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호재다. 김치·비빔밥·잡곡밥 등 전통 한식은 이미 비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매력을 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파이가 작지만, 미국·유럽에서는 한식이 균형 잡힌 건강식으로 인식돼 수요가 늘고 있다”며 “비건과 한식의 결합은 해외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정관장 모델 박보검.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

정관장 신규모델에 배우 박보검 선정

KGC인삼공사가 정관장 신규모델로 배우 박보검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델 기용은 정관장이 지난 수년간 폭넓은 세대의 사랑을 받아온 스타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전해온 흐름을 잇는 것이다.

정관장은 박보검의 믿음직하고 건강한 청년 이미지가 브랜드 핵심 메시지인 ‘건강함(正)’과 ‘진정성(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보검은 오는 9월 5일부터 방영하는 TV CF를 시작으로 본격 모델 활동에 나선다. 정관장은 신규 광고에서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슬로건 아래 오랜 연구와 까다로운 품질 관리로 완성한 정관장만의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정관장은 박보검과 함께 고객 참여형 행사를 기획하며 젊은 세대와의 접점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정관장 마스터브랜드 캠페인을 비롯해 제품 광고와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한화푸드테크

통합 요리 경연대회 ‘수건 케이크’ 최우수

한화푸드테크가 더플라자와 63레스토랑 셰프들을 대상으로 한 첫 통합 요리 경연대회를 열고 창의적인 메뉴 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한화푸드테크는 지난 11일 더플라자 다이아몬드 홀에서 ‘더플라자·63레스토랑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원, 세븐스퀘어, 블랑제리 더플라자, 위경온더클라우드, 터치더스카이, 슈치쿠, 백리향, 파빌리온 용산 등 11개 레스토랑 셰프들이 참가해 45팀이 예선을 치렀고, 이 가운데 2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양식 6종, 중식 3종, 뷔페 5종, 디저트 4종이 출품됐다. 심사 결과 블랑제리 더플라자의 ‘수건 케이크’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호텔 수건을 모티브로 한 디저트 세트 블루베리·플레인·초코 타월 3종으로 구성됐다. 우수상은 터치더스카이 셰프팀의 ‘탑스타구이와 킹크랩 살사’, ‘비프웰링턴’이 선정됐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얼티브’ 시니어 영양음료 시장 공략

‘얼티브 식물성 영양식’ 4종 출시 균형영양식·당뇨영양식 각각 2종

CJ제일제당의 1호 사내벤처 브랜드 ‘얼티브 (ALTIVE)’가 빠르게 성장 중인 시니어 영양음료 시장 공략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식물성 원료 기반의 단백질로 만든 ‘얼티브 식물성 영양식 (사진)’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한 ‘균형영양식’과 ‘당뇨영양식’ 두 가지다.

균형영양식은 영양 보충이 필요한 환자의 균형 있는 식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구수한맛·흑임자맛 2종으로 구성됐다. 당뇨영양식은 당뇨 환자나 혈당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제품으로 호두맛·고구마맛



2종으로 출시됐다.

한 팩에 5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비타민·미네랄)를 담은 고단백·고식이섬유 제품이며 유당에 민감한 소비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균형영양식은 저당 설계로, 당뇨영양식은 당류 0g로 설계했다.

얼티브는 2022년 6월 식물성 음료 시장에 진출한 이후 단백질 음료를 시작으로 아이스크림 등 다양하게 제품군

을 확장하며 대표 식물성 음료·디저트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1400만 개를 돌파했으며, 올해 말까지 누적 판매액은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웰니스 트렌드 확산으로 일상속 건강관리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식물성 음료 수요가 늘고 있다”며 “사내벤처 대표 성공사례로 꼽히는 ‘얼티브’는 앞으로

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건강 니즈를 반영한 식물성 제품들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니어 영양음료는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분류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772억 원에서 2023년 3552억 원으로 확대됐다. 연평균 성장률은 39%에 달한다.

/신원선 기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中 진출

온코닉테라퓨틱스, 中 품목허가신청

대한민국 37호 신약 ‘자큐보’가 위식도역류질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위식도역류질환 분야 중국 내 1위 기업인 리브존 제약이 P-CAB 신약 ‘자스타프라잔(국내 제품명 ‘자큐보정’)'의 중국 임상 3

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품목허가신청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온코닉테라퓨틱스와 리브존은 지난 2023년 4월 중화권(중국·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 달러(약 200억 원)를 수령한 바 있다. 국내 기술이전 사례에서 계약금

200억원이상의 대형 기술수출 딜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중국 파트너사 리브존은 2023년 11월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통상 1년 이상 수년까지 걸리는 임상 3상을 약 7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리브존은 중국 소화기계 치료제 시장에서 연매출 6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1위 기업이다. 전체 매출은 2조4000억원, 시가총액은 12조원에 달한다.

자스타프라잔(자큐보정)은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직접 개발을 통해 지난해 4월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월 출시됐다. 이후 6개월 만에 누적 100억 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데 이어, 출시 후 세번째 분기만에 분기105억원 수준의 원외처방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자큐보가 현재 성장세를 유지하면 내년에는 처방 매출이 연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자큐보는 지금까지 해외에 4건의 기술수출 계약 및 유통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계 26개국에 진출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헛터그룹에서는 누구나 성실하면, 억대 연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헛터그룹의 성장을 주도하실 프리랜서 영업지부장님을 모십니다.

헛터그룹 소개

풍요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30년 전통의 "헛터그룹"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홍삼(주) _ 건강백화점 사업부문**

1000여개의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홍삼&건강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 _ 수출 사업부문**

홍삼&건강상품을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CIS의 36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방송 _ 브레인TV 사업부문**

3,600만여 가구의 가시청가구를 확보하고, 350여개의 TV채널과 경쟁하여, 당당히 50위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장기, 체스, 보드게임 전문 TV방송채널으로서, 강력한 마케팅도구로서 최고의 가성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라이프 _ 이커머스 사업부문**

7만여종의 취급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자체적으로 종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50여개 파트너사에 복지쇼핑몰의 구축과 IT개발관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삼장홍삼(주) _ 한삼인 유통 사업부문**

농협홍삼 한삼인의 발효홍삼제품의 국내와 해외 유통의 독점 판매원으로서, 2009년부터 한삼인 발효홍삼제품의 국내외 유통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요강

모집부문	주요업무	자격요건	인원
영업지부장 (위촉직/프리랜서)	"헛터그룹에서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소개만 시켜주십시오. 사업설명과 계약은 본사가 책임집니다." ◎ 건강상품의 창업후보자 발굴 ◎ 복지쇼핑몰 개설 후보자 발굴 ◎ TV 광고스폰서 발굴 ◎ 건강 상품 판매, 도소매업자 발굴 등	당신의 열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경력, 학력 무관	00명

급여조건

100% 성과급 (개척수당+매출액 비례 성과급)

전형절차

서류접수 → 면접 → 활동시작

연락처 : 010-9954-1067/02-2163-0049



GC녹십자·태국 적십자사, 혈장분획제제 인력양성
GC녹십자는 태국 적십자사와 혈장분획제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현지 생산 인력을 위한 현장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박형준 GC녹십자 오창공장 본부장(왼쪽)과 두차이 차이 와니치시리(Dootchai Chaiwanichsiri) 태국 적십자사 혈액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C녹십자



에경산업, 에너지날 맞아 ‘애·탄·다’ 캠페인 진행
에경산업이 오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탄소 다이어트 사내 문화 형성을 위한 ‘애·탄·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애·탄·다’ 캠페인은 탄소 배출 증가로 애타는 지구를 위해 진행하는 ‘에경산업 탄소 다이어트’ 사내 캠페인으로 업무와 일상 속에서 간단한 실천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 감축 활동이다. /에경산업



동아오츠카,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장병 지원
동아오츠카는 지난 7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장병들에게 이운음료 포카리스웨트 2000개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수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장병을 투입해 지역 주민들의 수해 복구와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아오츠카



에이스침대, 배송 서비스 품질 향상 워크샵 성료
에이스침대가 배송 협력사 마이트앤메인(M&M)과 함께 진행한 서비스 품질 향상 워크샵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양사 임직원, 배송 매니저 등 총 105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은 프리미엄 배송을 위한 배송 전문 매니저들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에이스침대



동국제강그룹, ‘815런’에 2060만원 후원
동국제강그룹이 한국해비타트 주관 2025 ‘815런’을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 815런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 마라톤 캠페인이다.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광복절에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후원금 815만원에 임직원 및 가족 230명 참가비 1245만원을 더해 2060만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전했다. 가수 선이 동국제강그룹 후원금 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제강

현대차그룹 3대 회장, 글로벌 車산업 이끈 인물 기념상

**美 ‘오토모티브 뉴스’ 창간 100주년
정주영·정몽구·정의선 회장 선정
車 강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할**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과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발휘한 인물로 미국 유력 매체의 100주년 기념상을 받았다.

18일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과 가문을 선정해 발표했다.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은 토요타의 아키히토 요다 회장, 스텔란티스의 존 엘칸 회장, 제너럴모터스(GM) 메리 바라 회장, 포드의 빌 포드 회장 등과 함께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세계적 디자이너 조르제 토 주지아로 GFG 회장, 루크 동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볼케 현대차그룹 사장 등도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매체로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창간 100주년인 올해는 비전, 혁신, 리더십으로 세계 자동

차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및 가문을 선정해 ‘100주년 기념상’을 수여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켰다”며 “정주영 창업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일궜은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정의선 회장은 과거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에서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키는 등 현대차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모터스포츠, 안전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로보틱스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분야로도 진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토모티브 뉴스는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이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자 자동차 강국으로 변모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 취약계층에 제철음식 나눠

**임직원 봉사단, 무악동성당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

한화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행촌동 천주교 무악동성당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제철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화와 ‘자원을 일구는 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제철 음식을 섭취하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 임직원 20여명은 무악동·교남동 일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50가구를 직접 찾아 삼계탕과 포도 등 보양식과 제철 과일을 전달했다.

한화 이영찬 인사지원팀장은 “폭염과 폭우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한화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서 취약계층 가구에 삼계탕과 포도 등 제철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한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그룹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원권희 기자 wkh@

신한證,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

주니어보드, 예방교육 진행

신한투자증권이금융사기에취약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 주니어보드는 지난 14일 마포 종합노인복지관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SMS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한투자증권 사내 MZ세대로 구성된 오피니언 리더인 주니어보드가 기획한 ESG경영 실천 및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악성 앱, 원격 조종, 정부 기관 사칭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 수법에 대해 시니어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에서는 시니어가 실제로 자주 겪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시니어 세대의 노후 자금 보호와 디지털 격차 완화를 통한 생활 밀착형 예방 수칙을 전달했다. ▲검찰·경찰·금융기관 사칭과 대환대출 빚자 전화(보이스피싱) ▲정부지원금·환급·요금 고지·택배 알림 등을 사칭한 문자 링크 클릭 → 악성 앱 설치 → 원격조종으로 이어지는 스미싱(SMS 사기) 등을 다뤘다. 더불어 ▲의심·차단·확인 의 즉시 대처 루틴 ▲문자 내 링크(URL) 미접속 ▲출처 불명 앱 설치 금지 등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피해가 의심될 때 활용할 공식 신고·상담 창구도 함께 소개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LG화학, 재활용 사회공헌 아이디어 발굴

내달 19일까지 공모전 접수

LG화학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한다.

LG화학은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리사이클 사회공헌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전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해 지역사회와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 주제는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쓰임을 더해 지역과 일상을 바꾸

는 방법’으로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LG화학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장애포조기구, 놀이터 기구, 조명, 생활용품 등 LG화학의 사업과 연계된 제품 아이디어에 가점을 부여한다.

다음 달 19일까지 기대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6(인)팀을 대상으로 LG화학의 친환경 소재가 적용된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유혜은 수습기자 dhahledhale@

한국타이어, 인니서 해안숲 조성 활동

맹그로브 나무 5000그루 식재

한국타이어는 인도네시아공장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브카시 지역 세데르하나 해변 일대에서 총 5000그루의 맹그로브 나무를 심는 해안숲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브카시 해안에 총 7500그루의 맹그로브 숲을 조성했다. 맹그로브는 지면에 강하게 뿌리내림으로써 해안 침식을 예방하며 탄소 흡수 능력과 오염 정화, 생물다양성 유지 기능도 탁월해 해양 생태계 보호의 핵심을 담당한다.

한국타이어는 인도네시아 현지



지난 9일 맹그로브 식재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공장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타이어 기부’,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 ‘발육 부진 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 등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인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보직 인사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 김성균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이상열 △경영지원본부장 안병영 △전략정책연구본부 원전정책연구실장 김창훈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집단에너지연구실장 윤태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 수소경제연구단장 강병욱

부음

▲ 나찬순(향년 86세)씨 별세, 남승래·남인자·남경자·남승남·남은선씨 모친상, 김홍익·김태환·황용성·이성용(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대표)씨 장모상 = 17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2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10분, 장지 충북 영동 선영. 02-3010-2000

LG HelloVision

Hello rental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위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월 9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월 34,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6,500원

월 1,500원

일시불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 (~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 (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의 발견에서 제로 칼로리까지



연 윤 열 의
푸드톡

고대 인도에서 발견된 0(제로)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0은 위치 기수법을 가능하게 하여 수학과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0과 1로 작동하는 컴퓨터의 이진법 디지털 혁명을 이끌었다. 하지만 식품 포장지에 적혀있는 ‘제로’는 수학적 의미의 0이 아니다.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공전에 따르면, ‘무(無)’ 또는 ‘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해당 성분이 식품 100g당 특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칼로리의 경우 100g당 4kcal 이하, 당류는 100g당 0.5g 이하, 나트륨은 100g당 5mg 이하면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다. 즉, 완전한 0이 아니라도 ‘제로’라고 광고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500ml 음료에 당분이 2g 들어 있다면 100ml당 0.4g이 들어 있음에도 ‘제로 슈가’라고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전체 용량을 마시면 결국 2g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지만, 제품 포장에는 당당히(?) ‘제로’라고 적혀있는 셈이다.

‘제로 칼로리’ 제품들이 단맛을 내는 비결은 인공감미료에 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다양한 당 알코올에 속하는 감미료들이 설탕 대신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극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한 단맛을 낼 수 있어 칼로리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인공감미료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당분에 대한 갈망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인공감미료에 익숙해지면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아스파탐의 경우,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로 지방’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가공식품과 음식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맛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분이 나 나트륨을 더 많이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지방 함량은 줄었지만 전체 칼로리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메트로 독자들을 위해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5가지 원칙을 공개한다. 첫째,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기르자. 앞면의 광고 문구보다는 뒷면의 영양성분표가 진실을 말해준다. 특히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실제로 섭취하는 양과 비교해보자.

둘째, 원재료명을 확인하자.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시되므로, 앞쪽에 위치한 재료들이 주성분이다. ‘제로 슈가’라고 적혀있어도 원재료명 앞쪽에 인공감미료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다면 단맛이 강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제로’ 제품이라고 해서 무제한 섭취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칼로리가 낮다고 해서 영양가가 높은 것도 아니며, 인공첨가물에 의존한 제품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다양성을 추구하자. 한 가지 ‘제로’ 제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자. 당뇨병 환자라면 ‘제로 슈가’ 제품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임신부나 성장기 어린이라면 인공감미료보다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결국 ‘제로’ 마케팅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식품기술사,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사)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식량안보연구센터장

지방 건설투자 방안과 마스터키



기지 수집
전 지 원
(금융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정부가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메시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사업 지연과 유찰을 막음과 동시에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정책 내용은 낯설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온 대책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지방 경기가 살아나겠느냐”는 식으로 뼈뺏하게 볼 일만도 아니다. 건설경기는

본래 경기 전체 흐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

대책은 다섯 가지다. 특례 적용 범위를 넓힌 ‘세컨드홈’ 세제 지원 확대는 인구감소 지역 주택 매입을 유도하려는 조치지만 별장·주말농장 같은 성격이 강해 효과가 지역별로 제한적일 수 있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 복원 역시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세차익 목적 때문에 전 지역에서 균등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보다 직접적인 카드는 지방 악성 미분양 취득 시 세제 완화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움직일지는 불확실하고 오히려 다주택자나 리츠 자금이 단기 투자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공공 매입 확대도 마찬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장 전체를 떠받칠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여건이 악화된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업계 호평이 많은 부분은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기준금액을 올려 사업 속도를 높이고 단가와 물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공사 낙찰하한율을 높여 덤핑 입찰을 줄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보강방안은 지방 건설경기를 단순히 회복시킬 마스터키는 아니다. 다만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에 의미가 있다. 중요한 건 이후다. 단기 처방에 그칠 게 아니라 지방 수요 구조와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지가 관건이다.

/jjw13@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양금상살



壬子生 戊申月 丙申日, 癸卯大運에서, 결국 財宮에 癸(子卯형,庚辰,辰辰형,辛巳月子巳형)들면 나도 너도 계속해서 어두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 나아가 未月부터 子未害=해칠해申月癸이니 건강뿐 아니라, 세상을 원망할 일밖에 없다. 未는 쥐띠나 쥐를 또는 말에 가하는 채찍에 비유한다. 주변 사람을 품어서 놓치지 말아야 했는데 壬水의 아름다운 지난날 壬寅年;운명에서... 강휘상영江暉相映(강강, 별이름; 빛휘, 빛나다; 비칠영)으로 부귀를 거머쥐었으면 백성의 소리를 들었어야 했거늘 癸水로 교차되어 흑운차일黑雲遮日(검을흙, 구름운, 막을차)로 어렵게 변하게 된다. 이를 절체절명이라 한다. 흥한 운수라면 죽고 사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다만 대운에서 운이 좋거나 조상의 복덕이 따라주면 다소나마 조금은 편할 것이다.

이는 명리는 숫자의 역법에서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현재로는 절체절명이다. 귀신도 돌아왔은 경우라 귀신들도 더위에 지쳐있는 듯하다. 또한 기도하는 데도 힘이 많이 들어간다. 현재 상황은 개인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인간사에서 인간의 능력 밖에서 발생하는 최고의 재난이다. 자신의 일주 丙申에서 申중 庚금이 乙巳년에는 서서히 병病이든다, 乙巳년의 巳=戊庚 丙=巳中庚金을 보면, 兩金相殺양금상살을 예고하는데 양쪽의 쇠물기가 서로를 없애려고 하다가 크게 다친다는 뜻. 壬子年의 쥐는 乙巳年 뱀 앞에서 살길을 모색할수록 궁지에 몰린다. 이것이 子巳刑이다. 배우자의 팔자에서 신중의 庚子가 가느냐, 자신 庚辰의 庚금이 패자로 가게 되느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으니 패지敗地의 경우는 과거에도 연산군이 1506년 丙寅年에 폐위되고 중종反正이 일어났던 해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3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3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1일부터 원서 접수...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전면 도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온라인 통해 응시정보 직접 입력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 간편 납부
현장 본인확인 절차는 그대로 진행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전국 85개 수능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1일부터 일제히 응시원서 접수가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실시된다.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상이하므



지난 5일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로 각각의 접수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토·일 제외)이며,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

꼼히 확인하여 접수해야 한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은 수험생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에 전면 도입됐다. 현장 접수처 등에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수험생은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기존

과 동일하다.

또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 접수처에 방문(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 지참)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 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

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완료를 위한 현장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28일 ‘안심통장 2호’ 출시

대출조건 대폭 개선... 2000억 규모 공급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통해 신청 가능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다.

안심통장 2호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1호 대비 ▲협력은행 1곳→4곳 확대(우리는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청년 창업자 및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등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 방식도 개선했다. 재단 모바일 앱에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첫 주인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9월 4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로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

50%(CD금리+2.0%, '25.8월 초 기준) 수준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및 협력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파키스탄, 경제협력·문화교류 확대

‘한-파키스탄 우호협력의 날’ 행사
이동한 시장, 양국 협력 중요성 강조

고양시와 파키스탄이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동한 고양시장은 지난 16일 고양시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2025 한-파키스탄 우호협력의 날’ 행사에 참석해 파키스탄의 제78주년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는 사이드 모아잠 샤 주한 파키스탄 대사, 무다사르 알리 지마 파키스탄 비즈니스협회(PBA) 회장, 이상현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국내 거주 파키스탄 교민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양상공회의소와 PBA가 무역, 투자, 사업개발,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는 양해각서



지난 16일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왼쪽)이 파키스탄 우호협력의 날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양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교류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파키스탄 기업과의 상호투자 및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초·중학교 학생 449명, 2학기 농촌유학 참여

서울시교육청 단일학기 기준 최대

서울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총 449명이 오는 2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한다. 이는 2021년 농촌유학 프로그램 시행 이후 단일 학기 기준 최대 규모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참여 학생 449명 가운데 101명은 신규 참여자이며, 348명은 연장 참여자로 전체의 약 78%가 6개월 이상 유학을 지속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과 학부

모가 유학 생활에 만족해 참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서울시 공립 초·중학생이 농촌 지역 학교에 일정 기간 유학하며 생태환경 교육을 체험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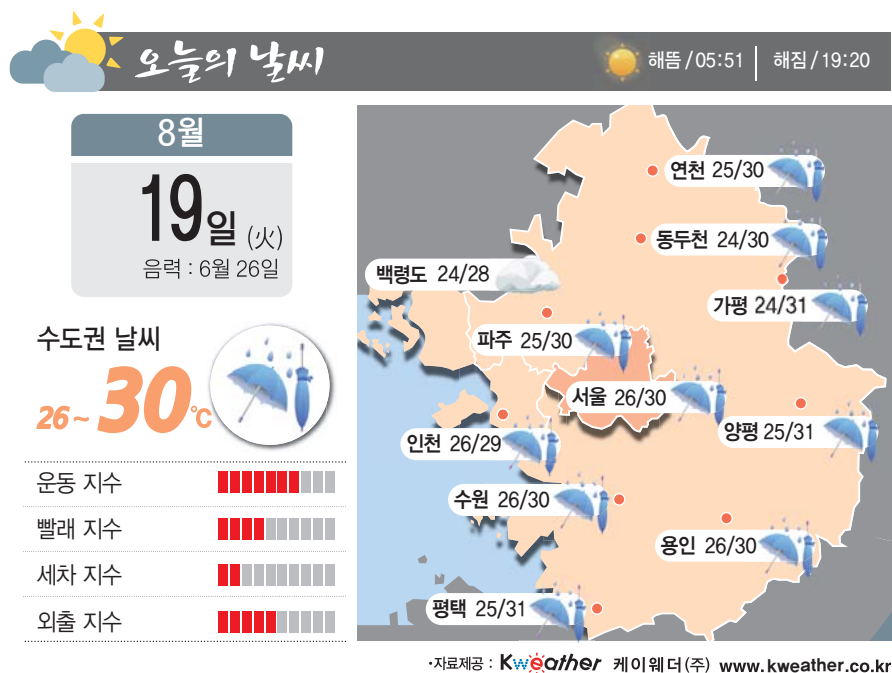
이번 2학기 농촌유학은 ▲강원특별자치도(184명) ▲전라남도(141명) ▲전북특별자치도(82명) ▲제주특별자치도(42명)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협약을 체

결한 신규 지역임에도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유학이 408명(약 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41명은 지역 유학센터에 입소해 농촌에서의 유학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농촌유학은 단기 체험을 넘어 학생들에게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소중한 교육 기회”라며 “농촌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농 상생 정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 앤디 김 등 미국 상원의원 방한... 조선산업 등 협력 추진
▲ 중국, 파키스탄에 세 번째 신행 잠수함 인도... 경쟁국 인도 예의주시



▲ 일본, 드론 활용 방위망 ‘실드’ 구상 2027년 구축 방침
▲ 이스라엘서 ‘가자 장악 반대’ 대규모 시위...40명 체포

/사진 뉴시스

▲ 독일 외무, 방일 앞두고 “중국 공격적 행보, 국제질서 위협”
▲ ‘경제난’ 속 볼리비아 대선...우파로 정권 교체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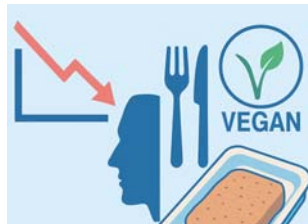
이마트
5000원 이하
초저가 상품 승부수
L1

metro®

Life

비건식품
맛·품질 장벽에
기업들 손댄다

L2



모델부터 편집까지 AI로... 첨단기술로 광고에 혁신 입히다

금융권에 부는 '애드테크' 바람

#삼성증권이 TV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는 광고 '썬의 한 수-작전명 엠팝(mPOP)', 광고 제작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활용됐다. 실사 또는 사람이 작업한 콘텐츠 없이 모든 영상을 AI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광고는 지난 6월 삼성증권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두 영상을 합쳐 총 300만회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사 앱 KB스타뱅킹을 소개하는 유튜브 광고에서 생성형 AI와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16종의 금융 서비스를 각각 시각화한 세로형 광고 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퇴직연금 상품 관련 신문 광고에도 AI 생성 이미지를 도입했다.

금융권 애드테크(광고+기술)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다. 하지만, AI콘텐츠를 두고 찬반으로 나뉜 시장 반응은 뜨겁다. 가성비 좋은 것지만, 소비자 거부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금융권 광고·마케팅까지 파고든 AI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을 가장 잘 활용하는 곳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이 가장 최근 선보인 작품은 '썬의 한 수 - 작전명 엠팝(mPO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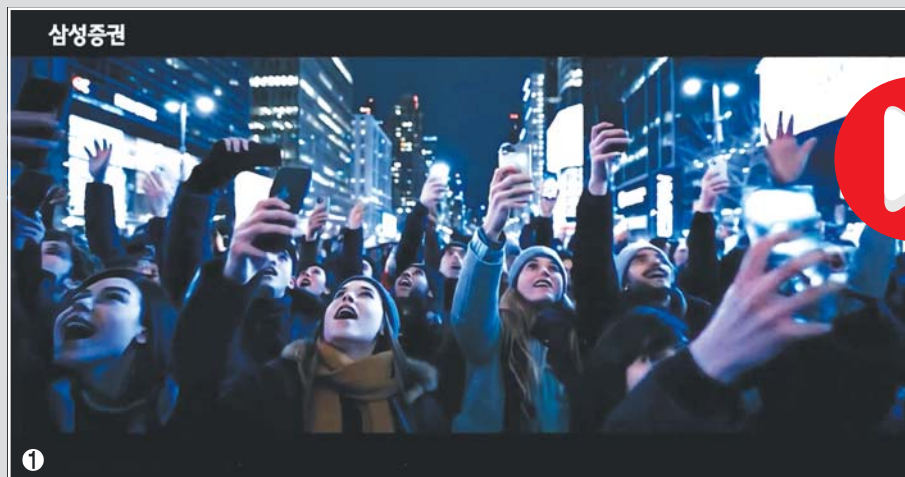
이 광고 영상은 마치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 예고편처럼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세상에 다친 위기를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기존 광고 기획의 틀을 깨고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삼성증권의 의지를 담아 기획됐다. 제작 과정 또한 일반적인 모델 섭외나 촬영 방식을 벗어나, 100% AI를 기반으로 구현됐다. 모티브 영상과 이번 광고 영상을 합쳐 총 3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기존에도 삼성증권은 AI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유튜브 콘텐츠 등에서 선보여 왔다. 100만뷰를 넘어선 트로트 뮤직비디오 '우상향 인생'은 AI 작곡 톨로 음원과 가수의 음성을 구현해냈으며, 지난 1월 설 연휴 서학개미를 위한 해외주식 콘텐츠 시리즈도 AI를 활용해 제작했다. 그 결과 삼성증권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239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삼성증권은 이번 광고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

방일남 삼성증권 미디어전략팀장은 "당사가 생성형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드라마, 뮤직비디오, 서바이벌 예능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리서치 리포트의 깊이 있는 투자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 투자 대중화에 기여하기



생성형 AI · AI Contents
금융권 광고·마케팅 분야



#애드테크 #생성형 AI #AI 애니메이션 #AI 광고
①모델, 촬영방식 등 AI 기술로 제작한 삼성증권 광고 '썬의 한 수 - 작전명 엠팝(mPOP)' 화면 캡처.
②미래에셋증권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동물원정대'.

광고·마케팅 분야, AI기술 본격 도입 소비자에 몰입감 있는 콘텐츠 제공해

삼성증권 AI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엠팝 광고영상, 300만 조회수 기록
미래에셋증권 AI 애니메이션 선배 **우리금융그룹** 스토리텔링에 AI 접목

제작비용 절감 효과에 AI활용 확산 AI 모델에 거부감 느끼는 소비자도 명확한 시스템 구축, 리스크 관리 필요

위험"이라며 "앞으로도 MZ 및 알파 세대 등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형식으로 리서치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작해 금융 정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AI 콘텐츠로 고객과 신뢰를 쌓고 올바른 투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곳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3일 생성형 AI 기술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동물원정대'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했다.

'동물원정대: 희망의 나무를 찾아서'란 제목의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회색으로

변해버린 도시를 되돌리기 위해 각자 다른 성향을 지닌 동물들이 힘을 합쳐 모험에 나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팀워크와 미래를 향한 가치판단이라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미래에셋증권의 투자 원칙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작 과정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 캐릭터 개발과 스토리 구성, 시각 연출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도 기존 방식 대비 약 90% 절감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4분 분량의 첫 에피소드가 업로드된 이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킹 오브 킹스' 등의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의 모교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원정대는 내달 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미래에셋증권 스마트머니 채널을 통해 새 에피소드가 공개되며, 추후 동화책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KB금융 등 다른 금융사들도 광고 마케팅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브랜드 캠페인 '언제나.우리를맨앞에'에서 생성형 AI를 스토리텔링에 접목했다. 브랜드 앰버서더인 아 이유가 신문 속 인물로 등장하는 장면은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

를 연결한다.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것을 넘어, 브랜드의 전통성과 미래 비전을 동시에 보여주는 정서적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우리카드는 '카드의정석2' 캠페인에 생성형 AI 기능을 전면 도입했다. 카드의 할인 혜택과 파격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광고 역시 키치하고 과감한 연출을 시도했다. 눈을 동그랗게 뜬 맹수와 놀라는 아기의 표정 등 실제 촬영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AI로 제작했고, 음악과 효과음 역시 자체 제작 AI를 활용해 구현했다.

보험사들도 광고 캠페인에 AI를 도입하고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4일 AI 기반의 신규 디지털 광고 캠페인 '캐롯 디지털 유니버스'를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고 영상의 기획부터 이미지, 성우 음성, 영상 효과에 이르기까지 제작 전반을 AI 기술로 구현해, 고객에게 한층 정교하고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가성비 굿 vs 소비자 거부감

기업 입장에서 시간은 비용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AI 광고를 외면하기 어렵다. 광고 업계도 적극적으로 AI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어도비는 29일(현지시간) 콘텐츠 플랫폼 젠스튜디오에 광고 제작을 위한 AI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어도비 측은 기존 영상을 다양한 광고 형식에 맞게 자동으로 재구성하거나, 정지된 이미지로 짧은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도 지난 9일 'AI 전속모델 상품'을 출시하고 30종에 이르는 AI 모델을 선보였다.

문제는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다는 점이다. 서울우유가 배우 박은빈의 아역 시절 모습을 AI로 재현했을 당시에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똑같아서 무섭다" "기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내만의 문제도 아니다. 게스의 광고 모델이 AI로 생성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SNS를 중심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현실의 모델들이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존하지 않는 AI 모델이 대형 잡지에 등장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생성형 AI 활용서: 6대 산업별 생성형 AI 도입 가치 분석'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도입은 산업 전반의 성장 기회를 넓히지만, 명확한 거버넌스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창모 한국 딜로이트 AI 통합 서비스(One AI) 그룹 수석위원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은 AI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통합·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부활 신호탄 쏜 '월드컵 스타' 조규성... 홍명보 대표팀도 '방긋'

▲'첫 도움' 손흥민 MLS 적응 완료... 데뷔골도 시간문제

/사진 뉴시스

▲8연패 빠진 롯데, 선두 LG와 격돌... 중위권은 혼돈의 순위 다툼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빌보드 200' 3주 연속 2위

▲뮤지컬 '데스노트' 2년 만에 돌아온다...조형근·김민석

▲202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엄함과 마찰' 주제로 10월 개막